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金炯元 印刷人 崔善進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一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의 敵陣地와 閘北江灣方面을爆擊
馬陸鎭의軍事兵站地空襲後
敵軍用列車또爆破!

【上海十七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部 午後九時發表

一、海軍航空隊는 今日終日 敵의 反攻準備를하엿든바 就中 江草大尉、小川中尉等이 指揮하는 部隊는 陳家口의 敵陣地에 對하야 猛烈한 爆擊을 敢行하야 同附近을 焦土로 化케하고 自相部隊는 金家碼頭의 大砲陣地를 粉碎하고 小倉部隊는 馬陸鎭의 軍事兵站地를 爆擊하엿다

二、그리고 一部는 陸戰隊와 協力하야 閘北、江灣方面의 敵陣地를 攻擊하는 同時에 後方連絡線에 對하야 徹底的爆擊을 敢行하엿다

三、京滬沿線에서는 眞義唯亭을 蘇州에서는 數十輛의 軍用列車를 爆擊하고 崑山附近에서는 軍隊를輸送하는 三列車에 銃擊을 加하고 嘉興、長安에서는 列車를 爆擊한外에 浦東側塘橋鎭의 敵軍司令部及塘橋鎭南端陣地를 爆擊하엿다

【上海十七日發同盟】軍報道部 午後六時發表

陸軍飛行隊는 十七日朝來 其主力으로써 敵陣地線의 要地에 對하야 爆擊을敢行하야 廣福、顧家巷附近의 敵陣地를 潰滅시켯다. 그리고 一部는 嘉定、蘇州、嘉興、崑山等敵後方의狀況을 偵察하고 海軍機와 協力하야 敵主要陣地를 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上海十七日發同盟】小倉中尉가 指揮하는 海軍航空部隊○機는 十七日午後二時三十分 南翔北方約五粁의 馬陸鎭에잇는 支那軍需倉庫를 爆擊하고 이를完全粉碎하엿다 同倉庫는 上海戰線의 支那軍兵站本部로 其爆破는 支那軍에對한 非常한 打擊으로 觀測된다

【上海十七日發同盟】十七日午前十時 國定藤雄中尉가 指揮하는 海軍航空隊○機는 蘇州驛을空襲하야 [illegible] 東行하는 軍用列車를 發見하는同時로 爆擊을加하야 이를粉碎하엿다

【上海十七日發同盟】十七日午前十一時 河村兵曹長이 指揮하는 我海軍航空部隊○機는 唯亭鎭(蘇州東方)驛內에 停車待避하고잇는 支那兵을 滿載한 軍用列車를發見하고 同時 이를爆擊하야 殲滅的打擊을 與하엿다

的大爆擊을 加하고 同地의 軍事重要部를 爆破하야 敵의 後方攪亂을 敢行하엿다

柏崎部隊南和占領

【石家莊十七日發同盟】柏崎部隊는 十六日順德東南方三里地點에잇는 南和를 占領하고 繼續하야 南進하는中이다

海軍機活動

【上海十七日發同盟】十七日正午 自相大尉가指揮하는 海軍航空部隊의 精銳○機는 大場鎭 羅店鎭中間의 淸家油車에 爆彈을投下하고 敵數千名에 機銃의 掃射를加하야 殲滅的打擊을與하엿다 그리고江草大尉、小川中尉가 指揮하는 ○機는 陳家行附近의 敵有力陣地에 果敢한 爆擊을加하야 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頑强한敵을驅逐 邯鄲驛을遂占領
快速部隊의猛擊奏効

【石家莊十七日發同盟】裝甲列車를先頭로 京漢線道를 猛驀하고잇든森山部隊의 先鋒部隊는 今朝六時邯鄲北側의 丘陵에 據하야頑强히 抵抗하는 敵을驅逐하고午前六時三十分 邯鄲驛을 完全占領하엿다

【邯鄲十七日發同盟】順德、河渦臨洺關으로 無人廣野를 달리고 자려南으로 敗敵을 追擊하야 驀進하는 我快速追擊列車는 昨夜臨洺河附近에서 또다시 潰走하는 敵約一千名과 遭遇하야 部隊이에 猛攻擊을 加하야 四散潰滅케하고 다시追擊을繼續하야 途中 十化集에 머물지안코 列車上에서 敗敵에게 射擊을加하면서 晝夜의 平原을突走하야 早曉六時마침내 邯鄲에突入하엿다 我追擊隊의 猛進으로 敵은 銃砲車를 버리고 遁走할뿐이엿다 그리하야 河北省境最終의 陣地인 磁縣에잇서 一戰은마침내豫期되지안코 一兩日中에 省境을突破하야 河南省彰德陣地에 迫할터인데 河北省內의 京漢線沿線의 敵은마침내 潰滅하게되엿다

【邯鄲十七日發同盟】(正中屋兩特派員發) 列車追擊最前線은 十六日午前十一時 邯鄲驛前의 小川에到着하엿다 鐵道線路는 逃亡하는 敵에게 破壞되어 卽時修理에 着手하엿다 밤이여자 附近에 約一千名의 敵이 [illegible] 와잇는것을發見하고 卽時散兵으로 이에 猛烈한 銃砲火를 퍼부엇다 交戰約三十分銃聲은 快晴의 朝空에 울리고 白煙은戰線에 덥혓스나 午前六時三十分 遠山部隊가 到着하야 一齊히 總攻擊을 開始하자 敵은忽然算을亂하야 潰走하엿다 遠山部隊는 [illegible] 猛烈히 追擊하자 敵은騎兵을 앞으로 奔走히 遁走하고 友軍은이를 追擊하고잇다

任縣占據

【○○十七日發同盟】子牙河上流의 龍華으로부터 西南方에 殘하야 敗散하는 敵에 急追를 加하고잇든 兒島部隊는 十六日午後八時頃 京漢線 順德으로부터 約五里東方任縣을 占據하엿다

太原爆擊

【○○十七日發同盟】十七日早朝 我荒鷲部隊의 ○○機는 大谷城(太原南方)을 爆擊하야 때마침 城內에 集結하고잇든 山西軍의 大部隊에 猛烈果敢한 大爆擊을 敢行하야 敵의後方을 攪亂하엿다. 我軍의 爆擊으로 城內의 敵部隊는 左往右往 大混亂에 陷하야 潰滅하엿다 그리고 同日午前九時及午後二時의 二回에亘하야 我島田部隊의 精銳는 敵의 最大據點인 太原에對하야 徹底 [illegible]

中央朝鮮協會長
朝鮮에"멧세이지"
中島主事南總督에傳達

在東京中央朝鮮協會에서는 今回事變에 對하야 朝鮮民衆의 銃後活動 其他時局에 關하야 坂谷會長이 南總督을 訪問하고 感激의 인사를드리고 敬意를表하랴하엿스나 病後靜養이 不許하야 同會中島主事를 代理로 特派하얏다 中島主事는 十八日朝 南總督을 訪問하고 左와如한「멧세이지」를發表하엿다

中央朝鮮協會長 坂谷男의「멧세이지」

今回의 日支事變은 畏히 七十二臨時議會에 下賜하옵신 勅語의 御趣旨에 依하야 明瞭한바와 如히 東亞의 大局은 日支兩國이 共存共榮하야 相互協力下에 安定을 確保할것임에도 不拘하고 支那政府는 恒常 敵意를 增長하야 排日抗日을 强調하야 [illegible] 策하야 我方에 挑戰하므로 我國은 不得已 奮起한것으로 干戈는本來 이러하고자하지안는바이지만은 일이 이에 이르러서는 不少한犧牲을 지고서라도 國難을 排除하는同時에 彼等으로서 內政外政의 革新에 徹底케하야 東亞永遠의 平和를 促進하라는 聖戰에 不過한것이다 朝鮮에잇서서는 事變當初부터 官民各位 總力一致 銃後愛國의 熱誠에 하는各方面의 非常한 貢獻은 實로 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日本國民이 皇國의 大事에際하야 盡忠報國의 赤誠을 다하는것은 當然한 일인데 我半島에서 今日如此히 壯烈한 愛國心의 發露를 보는것은 全혀 內鮮一體의 實을具現하는것으로서 邦家를爲하야 至慶에不堪하는바이다. 朝鮮의 此熱誠에 對하야는 內地朝野를 擧하야 感激하는바로 나는此際에 [illegible] 朝鮮에서 南總督閣下에 [illegible] 各位에 [illegible] 病後의 健康이 不許하므로 代理로主事를 派遣하야 謹히 總督閣下及 官民各位에 나의 衷心의 感謝와 敬意를 傳하야 表하는바이다

包頭北支重要地點

【北京十七日發同盟】包頭는 京綏線의 終點으로 五原一帶의 農產物及 黃河의 水運에 依한 羊毛皮의 集散地인데 西方五原의 河套地方을 除하고는 沙漠地帶에 包圍되여잇는 北部支那의 交通軍事上 重要地點이다

包頭占領까지

【包頭十八日發同盟】十六日夜부터 十七日未明까지 包頭를最後의 防戰地로 强固한 堅壘에依하야 頑强히 抵抗하든 敵을擊破하고 川村部隊는 其快速을利用하야 十七日午前八時○○列車로 追擊하든 松浦(旣報松村은誤報)部隊와 共同作戰을 取하야 黃河와 陰山山脈에 迫하엿다 陰山을 西走하는 敵을追擊하야 又急追하야 進行하는 車上에서 射落하는 我軍의 猛擊으로 敵은 銃을쥐고 馬首를도리킬줄도 업시 唐慌罔極 右往左往하야 黃河로뛰여드러가는者 樹木한줄기 업는 陰山의 峻嶺으로 攀登하려다가 射落되는者等支那軍은 全然支離滅裂 完全히殲滅되엿다 十七日午前十時十分 川村部隊의 先鋒은包頭城北門一角을占領하고 城壁上의敵을 追散하고 部隊長을先頭로 北門으로부터 堂堂히入城하야 城頭노피 日章旗를 揭揚하엿다 때는午前十時五十分

一方 松浦部隊는 包頭驛構內의 裝甲列車에依하야 頑强히抵抗하는敵을 一兵도남기지안코殲滅하고 午前十時 包頭驛을確保하엿다 本戰鬪에서 敵死者는 千五百以上으로 推定되고 支那軍騎兵中 精銳로 울리는 中央軍騎兵 第四、七兩師는 거이潰滅狀態에 陷하엿다

뽀이코트反對聲明을 平和團體和協會發表

【紐育十七日發同盟】支那事變의 進展에 伴하야 米國에서는 勞働組合으로부터 日貨뽀이코트조래자 漸次 高調되는데 平和團體和協會는 뽀이코트運動이 結局 有害無益하다하야 十七日左와如한 뽀이코트反對聲明을 發表하엿다

吾人은 日貨뽀이코트는 어데 深刻化한 反日感情을 一層促進하고 한거름나가서는 米國內의 軍國主義와 팟시즘의風潮를 誘致强化하게 될것이다 我等은 日貨뽀이코트 代身에 左의諸項을提案한다

一、中立法의適用

時事解說
日蘇漁業條約

캄차카半島를 中心을 삼고 그 附近一帶의 [illegible] 에 잇서서 漁業을 行하는것이 곳 [illegible] 漁業인데 어 [illegible] 日露戰爭의 結果 포츠마스條約에 依하야 어든 權利으로 [illegible] 다시 그 [illegible] 規定키 爲하야 [illegible] 의 [illegible] 日蘇漁業條約、今日의 [illegible] 締結해 온것이다。

本來 十二年間의 [illegible] 條約이 [illegible] 되고 [illegible] 에까지 [illegible] 大正 十、十一의兩年은 不[illegible] 自由的[illegible] 나아가다가 同十二年에 어르러 同十四年으로부터 昭和二年까지 三年間의 [illegible] 을 [illegible] 하고 다시 昭和四年에 잇서 同四年으로부터 同十一年까지 有効한 日蘇漁業條約을 새로이 [illegible] 한것이다。

◇

日蘇漁業條約에 [illegible] 漁業은 여러가지의 紛糾가 만헛거니와 그중에도 [illegible] 의 漁業[illegible] 事件과 [illegible] 兩國의 두가지가 가장 크다。[illegible] 어떠한 [illegible] 을 [illegible] 저 [illegible] 第一條가 [illegible] 第一條의 [illegible] 한 것인데 [illegible] 日本의 손으로 다시 [illegible] 아갓스나 [illegible] 은 中間에서 [illegible] 하면 [illegible] 의 利를 [illegible] 銀行支店에서 [illegible] 本來 [illegible] 昭和五年 [illegible] 支店이 [illegible] 에 [illegible] 하게 되야 [illegible] 公定市價에 依하게 되 [illegible] 가 莫大함으로 그 [illegible] 이 [illegible] 의 波瀾曲折을 지냇스되 昭和 [illegible] 年에 어르러 [illegible] 第三十二條五條로 [illegible] 되것이다。

◇

그런데 昨年 그條約의 [illegible] 을 [illegible] 고 새로이 交涉을 [illegible] 日獨防共協定을 理由로 [illegible] 그 調印을 拒否하고 一年間의 暫定協定으로 대신케 되엿다。 [illegible] 그 條約問題는 今年 [illegible] 되야 오겟이속 今 [illegible] 의 [illegible] 으로 [illegible] 의 [illegible] 에 [illegible] 하는 [illegible] 으로 [illegible] 어찌 나올는지 [illegible] 目을 [illegible] 한다。(又)

人事·集會

◇宇野友八氏(京城日報社營業局長)十六日 東京으로부터 歸任

八面鋒

◇ [illegible] 의 [illegible] 아즉도 早婚이 [illegible]

◇ 그中에도 法定年令 [illegible] 男女의 結婚이 만흔것은 朝鮮의 特徵。

◇ [illegible] 어 [illegible] 不正 [illegible] 는 無乎?

◇ [illegible] 年年히 減少한다 [illegible]

◇ 不自然한 結婚이 적어지면 自然 어것은 줄어질것。

◇ 結婚 [illegible] 普及으로 自然減 [illegible] 無엇보다 最上。

◇ [illegible] 京城에 初氷。 어느듯 [illegible]

◇ 겨울도 來日 모레 [illegible] 어때。

◇ 그러나 [illegible] 가 [illegible] 一名 [illegible] 社會政策도 急務。

河南省境突破
天津軍에서發表

田中部隊海南子占領

【天津十七日發同盟】包頭에 入城한田中部隊는 同時南進하야 包頭南方二里의 海南子를 占領하엿다 同地는 包頭外港으로 五原方面及寧夏와 黃河를 連絡하는 要衝으로 我軍은 黃河上의 [illegible] 完全把握하엿다

一、在支米國權益의擁護

一、日支間의調停

一、支那에잇서 米國人의治外法權撤廢

一、日支紛爭의解決에 擔任한 [illegible] 의除去

【天津十八日發同盟】天津軍午前十一時三十分發表 十八日午前三時十分 鐵道追擊隊는 磁州를 占領하고 裝甲列車는 다시南方二里에잇는 [illegible] 에 突進하엿다 四時半河南省境을 突破하엿다

工部局避病院 入院患者數名重傷

【上海十八日發同盟】敵飛行機는 [illegible] 十七日夜부터 數回飛來하야 虹口、楊樹浦를目標하고爆彈을投下하엿다 이때문에 上海紡績、東華紡績附近에 火災를 이르켯다 그리고 十八日午前四時十五分에도 敵機가 來하야 其一彈은 我中部小學校및 工部局避病院에 落下하야入院患者數名에게 重傷을 내이고 病舍는 目下延燒하는中이다

平漢線戰況

【天津十八日發同盟】午前十時天津軍司令部發表

一、野田、助川兩部隊는 十七日午後三時鷹年(永年)에 進入하엿다

一、森田、遠山兩部隊의 先鋒은 昨十七日馬頭鎭(邯鄲南方五里) 北側을 攻擊하야 午後九時頃

北部戰線完全破壞
大亞細亞抱負實現乎
蒙古民族再興과新華北誕生은史的課題
北支戰局一轉을機로

【天津十七日發同盟】○○部隊가 世界戰史에 자랑할만한 三百餘里의 聖戰은 偉業을 거이完成하엿다 綿綏八百九十粁에亘하야 內蒙과 北支那를 聯絡하는 京綏線은 完全히 皇軍의手中에드러갓다 이線은 南京政府가 自警自衛한 軍事的政治的重要鐵道로 이로써 마침내 山西省은 死命을 制하게되엿다 外蒙과 綏遠을 聯絡하고 寧夏甘肅의 中原에 至하는 赤色國際幹線은 徹底的으로 破壞된 同時에 南京政府從來의 滿蒙政策은 完全崩壞로 歸하엿다 南京政府가 抗日作戰으로 企圖한 北支五省의 包圍體制는 其重要不可缺한 北部戰線이 完全破壞되고 그의外線的作戰은 急轉하야 內線的作戰으로 陷하엿다 그리하야 西寧夏는 我戰略的要衝을 奪하게되고 山西省은 北東部의 要衝을 喪失하고 大原은 目睫에 迫하야 退路가 斷絶되고 河北省境의 敵은 거이 動搖되고 山東省의 中央部는 我軍의 重壓으로 屈服한 現狀으로 抵抗을 試驗치 안코라도 大勢는 이미 決定되여 北支戰局은 바야흐로 轉하야 皇國日本의 大亞細亞經綸의 大抱負와 蒙古民族의 再興 新華北誕生의 歷史的課題를 前面에 내세우고 힘잇게 [illegible] 것이다

企畫院 二十五日開店

【東京電話同盟】企畫廳과 資源局을 統合하야 新設될企畫院의 官制는 지난十四日 樞府審査委員會를 通過하야 來二十日樞府本會議에서 正式 可決될터임으로 政府는 二十二日 定例閣議에서 總裁以下의 人事를 內定하고 同時 처내 二十五日官制公布와 同時에 여러를 發令하야 企畫院의 事務를開始하게되엿다 그리고 外務參與官 船田中氏의 法制局長官榮轉도 同日에 發令될터이다 部局에서 檢査하는中이다

津浦線各地爆擊

【旅順十八日發同盟】旅順要港部十八日午前十時發表 [illegible] ○○部隊○○機는 十七日 津浦線桑安濟寧兗州臨城間及臨城棗莊間을 爆擊하야 敵機銃의 反擊을 冒하고 軍用機關車八輛 軍用貨車六輛을 大破시혓다 我에는 損害업다

二、津浦線方面의 ○○部隊는十四日夜大李吉寨(張莊西方二粁)의 敵을 夜襲하야 이를奪取하고 繼續하야 追擊 十五日午前二時張莊을 占領하엿다

三、山西方面 忻口鎭方面高地에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고잇든 敵을 十三日以來 猛擊하고잇든 菜飯原、大墳兩部隊는 今十七日朝 步砲 工의 密接한 協力下에 該地를 奪取하고 南方으로 向하야 進擊하고잇다

北支戰況

【天津十七日發同盟】午後四時三十分軍發表

一、京漢線方面의 遠山部隊의先鋒은 鐵路로 今朝六時半 邯鄲에 進入하야 同驛을占領하엿다

敵機不法하게도 赤十字病院을空爆

【上海十八日發同盟】昨夜來襲한 敵飛行機는 人道를無視하고 赤十字病院으로 公認된工部局傳染病院隔離病棟에 燒夷彈을 投下하야 家屋을燒却하고 邦人에게 負傷者一名을 내엿다 그리고 其一彈은 [illegible] 商店附近에 一彈이落下하나 一彈은不發되엿스나 他의 一彈은 炸裂하야 附近의邦人家屋에 損害를與하엿다 燒夷彈은 길이 五十糎의 小型인데 目下工部局에서 檢査하는中이다

包頭完全占領發表

【大同十七日發同盟】察哈爾○○軍發表○○部隊는 十七日午前九時包頭를 完全占領하엿다

【包頭十七日發同盟】察哈爾○○軍○○部隊十七日午後六時發表 川村部隊는 十七日午前十時五十分(東京時間)完全히 包頭를占領하엿다

○○部隊도 同日午後四時에 入城하엿다 市內는 平穩하고 皇軍에對한 民情도 大槪良好하야 目下殘敵을 掃蕩하는中이다

快速部隊主力入城

【包頭十七日發同盟】快速部隊主力은 十七日午後四時 蒙古軍先遣隊와함께 東門으로부터 堂堂히 包頭에入城하엿다 包頭市民은 每戶에日章旗를 揭揚하고日軍兩軍을 歡迎하엿다 縣政府는 要人의 逃亡으로 全然機能을喪失하엿스나 市民의 選出로同日午後五時에 縣政府가 組織되고 治安維持會도 成立되고 保安隊도 快速部隊와 協力하야敗殘兵掃蕩에 當하고잇는등 모두 內蒙古軍에對하야 歡迎하고잇다

森田、遠山兩部隊
滏陽河河岸占領
川村部隊는保合少를占據

【石家莊十八日發同盟】森田、遠山兩部隊의列車追擊隊는 滏陽河에 達하야 敵을攻擊하야 河岸을 占領하고잇는 馬頭鎭北側 滏陽河河岸을 占領하고 約二百米 北方을 前進中이다 同九時 여를 占領하고 漳河南進하는 河北省磁縣의 西側

北支戰線繼續進陟

十粁의地點이다

【天津十八日發同盟】川村部隊는 包頭를 占領한後 다시 西方三十粁의 地點에잇는 保合少에進出하야 十七日午後六時四十분 이를 占據하엿다

包頭占領으로 防共線一段强化

【天津十八日發同盟】我察哈爾○○軍의 快速部隊가 ○○機의 協力下에 陰山山脈을 따라 包頭로 急追하야 十七日午前十時五十分包頭城을 完全占領하엿다 包頭는 交通要衝 外蒙으로부터 綏遠에 通하는 支那新疆方面을 通하는 聯絡重要點으로 赤色의 經濟的中心地가 될만한 主要處이다 그리고 防共線은 寧夏、西安에 至하는 西北對國의 一貫한 聯絡하야 黃河上流에 至하는 防共線을 遮斷하야 蘇聯에 그리고 甘肅寧夏를支那共產軍에 企圖하고 新疆에 [illegible] 그 接觸面을 가지고 잇는만큼 今回事變以來 가장重要한 事態로 注目된다

命中 正確 彈力强大 空氣銃
各種射的銃用業界 特價大賣出し (四型銃大要ス)
大阪市南區順慶町一丁目 合資會社 常盤銃砲店 振替大阪三二五二〇八六二

パン饅頭燒 新案特許 森式 [illegible] (カタログ進呈) 製作所 神崎商會 大阪市港區[illegible]町

機裝塗付吹ラッカートダイ
特許 ポンプ付 一揃四十五圓 カタログ進呈
な要必非是に裝塗術美 手動式 不要動力 簡易操作 完全安全
大阪市住吉區[illegible] 大東商會 電住吉3815·3906

七寶徽章 メダル帽章 ネームプレート セルロイド徽章
伊代徽章金屬製作所 【仲間歡迎】 大阪市東成區[illegible]

印刷物經濟化! 太陽卓 石版印刷器
어것이다! 印刷物이 印刷된다!
事務에 商職에 敎育에 社交에 理想的인 本器 推奬
大阪市日本橋四丁目 太陽商會 (型錄進呈)

食料玩具 小物玩具 卸問屋 筑紫屋商店 大阪市東區[illegible]

印刷機 [illegible] 教瀨商店大阪本店 新聞業者には親切に説明した案內書進呈 大阪市西區[illegible]

京城竹添町 東洋劇場
晝夜 朝鮮歌舞會公演 南道西道名唱總出演
18
春花香 林山[illegible] 6場 2幕
南宮春作 流行性感冒 一幕
劇界의覇者 靑春座劇團 全員總熱演 (每日夜間만)
京城東洋劇場配屬 朝鮮聲樂研究會 地方巡回 十月十九日 仁川 十月二十日 [illegible] 十月二十一日 [illegible] 十月二十二日 [illegible]

五万分之一地図販売 京城鍾路和信橫側 店主 金敎昌 振替京城一五三九六番 電光二六二〇番

辭典拾冊 合本のバタ 一圓卅錢 分冊は各四十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 代進呈 模範日記 一册宛の分賣は各冊四十九錢
發賣元 大阪東淀川局區內西町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振替大阪五一六二一番

緊急分處 大投賣斷行
ラヂオ電器具 卸商 半島電機社 京城府[illegible]町 電光六四二五 (京城)三三五八五

朝光十一月事變擴大特輯號發賣中!

事變은얼마나擴大되고또그影響은어떠케되나? 이번內容은더豪華版!!

定價四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振替京城五七八番

石家莊에서 本社特派員 洪鍾仁手記

第一信

空腹으로强行軍 筆舌難現의苦楚

石家莊進擊에 殊勳을세운 ○○部隊의奮戰記

전선에나선 병사들의 고심과 그수고란것은 당면하여 실상을 보고도 오히려 한입으로 말할수업거던 전하는말을듯고 상상한다는것은 도저히 그진경을 알수업는것이다 이번 ○○부대(○○部隊)에 종군하여 병사들의 생활의 일부를보고 백전불굴의 인내력(忍耐力)에는저절로 머리를 숙이엇슬뿐이다 파견국가를 위하는적성과 인간적호련의 극치를 다한것이 전지에 충만하여 잇슴을 보앗다 여기에 종군중에 보고듯고 늣긴바를 주서모아 전선의통신으로 하려는 바이다

×

출전하사들의 수고야 어느부대이라고 그러고듬이 잇스랴만은 이번에 ○○부대의 활동전공이 큰만큼 그수고도 각별한것이 수는 틀히수입사이업는 계속적 추격(追擊)과행군에 잇슨것이다 보정(保定)점령 까지에도 칠백리 내지팔백리를두고 전혀 도보 행군이란것은 다른부대에서 경험치못한 곤난이잇지만 이남행군이 석가장(石家莊)공격에 또한계속 된것이엇다 석가○○부대의 추격전은 류리하(琉璃河)의 추격전에서 비롯하여 보정에 이르기까지 처처에 격렬한 추격전을 하면서 격의 회각에 유예할수 지안하엿든 강행군은 밤에시일 할지까지 계속하고 다시 새벽 세시 네시에 출발하는등 그사이에는 뒤로 보급해야할 식량이 결핍하여 조반에 편장든없이 생우이 또 각처 통행으로 먹든 동의일이 적지안햇다

이것이 얼마나 병사에게 만은 것이아니고 사령부(司令部)직속 장교들까지 그러한생활을 닭게 하엿다는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심이 컷는가를 알수잇거니와 그러한 강행군의결과 보정을점령하자 잣가수삼일위이기는 하엿스나 다시 석가장공격에 적의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받게되자 철도연선에 멀리떠나산길을밟어 돌아가게되니 그간에 얼마나 수고스러웟슬까를 짐작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이번석가장공격까지의 행군은 거리에잇서서 전번에못하지안흔 장거리이엇스나 요행 비가안오고 일기도적자로 서늘하여서 더위에애먹지 안흔것만은 얼마큼 유리하엿다고한다 그러타고는해도 무거운짐을이나되는 배낭(背囊)을 지고어깨에걸고 무거운구두를 끌고 몇시간씩 걸고 옹이한것이 아니다 바람도 서늘하다고는 하나 쭉이는 볕에 땀은 비오듯하는데 북지나일대는 황토대지인 연일비를 이라 약간 바람이불면 몬지가 실로 황진만장(黃塵萬丈) 옥이루어 전원은 몬지를뒤쓰게되여옷도물물도 일개의흙덩이가되고 만다 그우에 해군중하고 저녁에는 저서 숙영(宿營)할곳에 다으면 각히그냥 저녁밥을 짓기와 잘곳을작만하기와 도라다음(?)의 준비에 눈코 뜰사이가업스니 언사이에 세수하고이닥을새이도 업다 그러고보니 땀에배인 내복을 벗는다는것은 도저히 용이치안흔일이다 다소 면의가엿슬거나 우리신문기자들로 서도밤엔 아침 어데나는길로 발을 또한자 흔히 못하고 밤을 양주일도 변변히 못하고 발을 앙씨 쉬지 못하고 떠나가면 제일선에서 전투명령을 위하여 최대한도의 시간여유를 가지어야할 병사의 고달프고 긴장한 그수고는 도저히 형언할것도 못된다

그리고 잠을 잔다는곳은 물론전지에서의 일이라 당초부터 누구나 편안할것은 기대하지안혓다고 해도 어것이도상상할 수업는 고통이다. 철도연선으로 나서면은 부락도 비교적 생활 정도가 나온곳도 엇스나 촌락으로 들어가면은 그생활이 참저 롭고 농노(農奴)생활에 갓가운 것이다 그러고 더러어서 어떠한 농가에 어는 한구석을 어더서 침식을 하겟다는것도 용이치안흔일이다 이러한 생활에이른데서는 도회지에서 보든 위생관념은 완전히 포기되어야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마리도 들어가 자게된다는것은 매나흔편이고 야영(野營)이나 하게된다면 들판에서 그대로 서로를둥우려치고 눈만 붓치게되는것이다 결국전지생활을 좋을 어떠하다면 먹고 자고 그러고 자중생활을하여 전선생활을 정중하는것밖게 다른아무것도 업는것이다 그러면 서로생활을 도와 엄렴하여나아가는 가운데 무한한진보열을 발휘하야 황군의영예를 신이분투하는것이다 그런데 철도연선을떠나서 행군을하게되면 뒤로식량가지 수요품이 자주두절되어 향상부식물과 간식의구단처럼기들 보기되는데 병사들을만나면 저마다 담배를 찻는다 약품몰을었는다 나흘을 주엇는데 또는담배한개로 열몃사람이 노나피웟다는등 그러케 담배가귀한것에 계란을듕하다가도 흑여 구하나는것이 손에잡히여 『여보시오 우리에게!』 하고간청하고 본지도못하겟잔는 어거하니 안 가는것을 보면서는때를 떠다운한 사라지하 건다 어것은 전지의 고생중긴 허기에 영영군사의 따뜻한이정 의발로이다. 【朝鮮軍檢閱濟】(사진은 홍특파원)(계속)

朝鮮軍事後援聯盟 慰問團石家莊着

戰捷後一息하는○○部隊에 懇曲한慰問傳達

【石家莊에서本社特派員洪鍾仁發信】○○부대(○○部隊)가 석가장공격의 중대임무를 마치고 사령부가목적지인 고천존(高遷村)에 도착한다음날인 십삼일조선군사후원련맹의 위문단의일행 안배량부(安倍良夫)소장이하

小田口豐 板田文吉 實業組 播都芳樹 村尾伊勢松 柳生榮雄

의 여섯분이 도착하엿다 마침 석가장공격에 용천하고 자리를 다소 안도한때여서 위문단의 래방도 때를어든감이잇서다 부대장도 위문단이 만흔 위문품을 가지고온것을 기뻐할뿐아니라 각마을에서 각병사들도 고향의 위문단래방의소문이 전하자반기는소래가 진중에 높하다 위문단은 부대장에게 각병사의수고를치하하고 조선내에서의총후의구드힘을 다하고잇슴을 전하엿다 그러고 일행은 다시각부대를돌아보고 석사와 대를 천진북평으로나와 각지의야전병원을심방키로하엿다 【朝鮮軍檢閱濟】

寒波는當分間繼續

蒙古方面의高氣壓關係로 朝夕으로치울것이다

【仁川支局電話】갑작히 치워진 날세를 측후소로 물어본즉 십팔일오전여섯시 현재의 각지온도는 중강진(中江鎭)일도、웅기(雄基)오도、성진(城津)이도、신의주(新義州)삼도、강릉(江陵)사도 추풍령(秋風嶺)이도、대구(大邱)일도、부산(釜山)오도、울산(蔚山) 경성(京城)이 령하령도오이다 평년기온에 비하면 약팔도가량이나얏다 이와가티 기온이내린것은 몽고(蒙古)지방에 잇든고기압(高氣壓)이 급격히 북만주로 향하야 진행하고 잇기때문에 조선중심으로기온이 급강한것이다 이치운는 당분간계속할모양으로 그정도는 아츰저녁으로는대단치울것이나 낫에는 좀더울것갓다 그러고태풍은 충승현렬도(沖繩縣列島)의남동(南東)방면동경(東經)일백삼십이도 북위(北緯)이십삼도의 지점에 칠백이십오『미리』의 우세한태풍(颱風)이 동북동(東北東)을 향하야 십오『키로』의속력으로 지내가고잇스나 아직일본내지에는 아모피해도업스나 어태풍관게로 관동지방(關東地方)은 대체로흐리고 간간이비가온다 구주(九州)와만주 조선은 쾌청이다 황해(黃海)의 중부에는 질풍(疾風)정도의 풍세가잇서 연안을다소얼습할우려가잇스나 십팔일안으로 이것도업서질것갓다

京城神社例祭日

官廳은半休

官公吏는自由로參拜

경성신사의 어례제(御例祭)는십팔일 오전열시에 순서에 따라 엄숙히 집행하엿다 어날총독부이하 각관공청관공리는 오후부터 사무를 쉬고 각기 자유로 참배하엿스며 부내 각중등학교생도들은 오전에 다수히 참배하엿다(사진은 어례제식장)

閔休、許暉兩氏 人事次本社來訪

삼십칠년이란 긴세월을 선경(鮮經)을 조선말로 번역 하야 널리보급식히는 단한가지목적에 종사하야 지난 오늘까지에 개역(改譯)까지 완전히 마치스며일천팔백만권이라성경을 이땅에퍼 노흔기독교뿐만아니라 조선말의 사상에도 일대공로자인 대영성서공회(大英聖書公會)총무 휴 밀러(閔休)씨는 십구일 경성을떠나 미국으로 향하게되엿는데 십팔일본사에 그섭섭에 벗나는얼굴을 나타내여 오래동안 조선에서 버티어온 후의를 사하는 동시에 렴인의사의말을 한바잇섯스며 동시에 그후임자 로마·스·홉스(許暉)씨도와서 신임인사를하고 도라갓다 민휴선생은 부인을다리고 십구일오후네시십오분『아까쓰끼』로 경성역을떠나 횡빈(橫濱)서배를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잇섯는에잇는 두아들 며누리와 질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마지하고 봄에는카나다(加奈陀)각처에서 성서사업(聖書事業)에관한강연을 한다음

徘徊中의 窃盜逮捕

충남 당진군 합덕면 합덕리(忠南唐津郡合德面合德里)에 사는 로순철(盧舜鐵)(二七)이는 류월중순 엿집에드러가서 현금칠백원을훔쳐가지고 그길로 발뽕 선올타고 인천(仁川)까지 와다가 다시서울에와서 이곳저곳으로배회하든동 구월조순 본정통(?) 지고 도주하얏다하야 부내각서에 수배중이든바 긔운업시 다니다가 보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고는 다시아들이잇는 미국으로 도라가 질거운여생을 그곳에서 보낼예정이라고한다 (사진은 바른편민휴씨、왼편홉스씨)

三人이共謀

請負金携帶逃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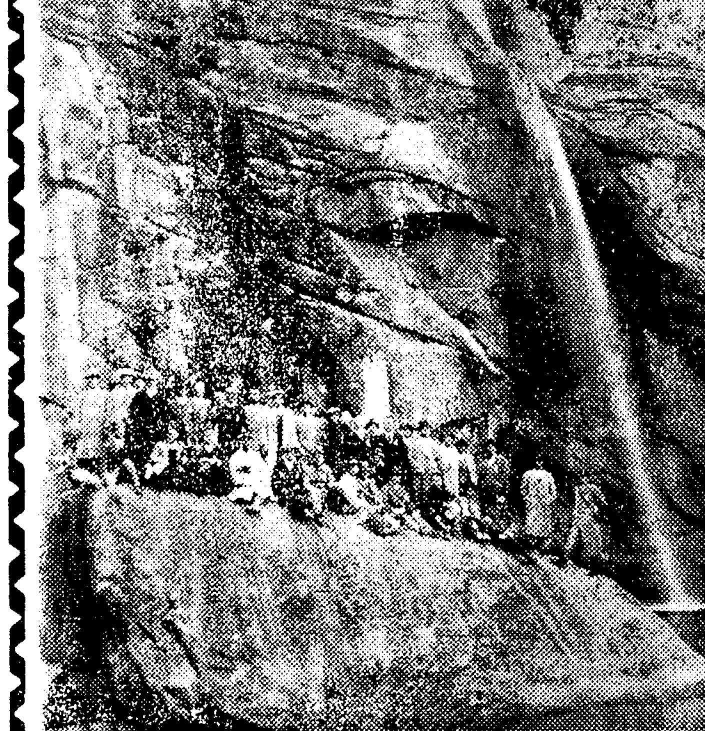
부내 미근정(渼芹町)일백오번지에사는 산전히시(山田喜市)(?)는 부내어성정(御成町)에 옛는오부조(屋部組)에서 고용인으로잇다가 저난십칠일에 가티잇는고용인 안등삼길(安藤三吉)안등청(淸)의 두사람과 공모하야 청부금 삼인분일백칠십오원을가지고 도주하야 부내각서에서 수배중이다

商工探勝團歸還 本社主催

본사주최의 제삼회상공업자단풍노리 탐승단일행은 예정한순서대로 천마산박연(天摩山朴淵)의 승경과 송도고적(松都古蹟)과 개성박삼제조장등의 구경을마치고 십칠일오후 아홉시오십분에 무사히 경성에도착하엿다 이날탐승단일행백명은 일대와이대의 두대로나누어서 오전아홉시오십분에 개성역에나리자마자 얼단오십명은 세대의자동차에 분승하야 바로 목적지박연으로 향하게되고 이대오십명은 개성박물관(博物館)선죽교(善竹橋)만월대(滿月臺)개성삼업 주식회사의 백삼제조장등을 먼저구경한뒤에 역시 박연으로 향하엿다

개성역에서 박연까지는 조선리수로 칠십리로서 천마산봉우편으로 제석산(帝釋山)을 좌편으로 끼고서 구비구비 산골로 도라드러가게 되엿는데 박연의 어구에 드러서자마자 벌서천마산의 기암괴석(奇岩怪石)과 성거봉(聖居峰)의 찬란한 단풍빛은 탐승단일행의 시선을 일시에 집중케하야 모두들 황홀하야 이곳이 금강산의 일부분이 아닌가고 의심할만하게 되엿고 또 천하에 유명한 박연폭포가 암벽(岩壁)의 꼭대기에서 비류직하(飛流直下)하야 은하(銀河)가 구천(九天)에 떠러지는것인가 하엿다 어떠한것을 보고 일행은한동안 옷깃을 여미고 발길을 멈추고잇섯다

폭포의 주위를 더듬라가서는 고려(高麗)때의 지정되여잇는 국보(國寶)로 대웅전(大雄殿)을 참배하고 판엔관음사(觀音寺) 연산홍엽(滿山紅葉)속에서 박연의 정경을 감상하엿다 박연의 정경을 감상한 일행은 또 개성삼업주식회사 당국자의 천절한 인도로 일년생산출이만근인 곳에서 인삼을 감조제하는방장에 이나리는 백삼을 가직접보고 간절한단영도 상당에 일천만여명의남녀직공이 분주히 일행을 맛는 등도 의 크게조 장에 구수한 인삼을차 도마시고 일행은 그우 천원짜리 배원을 배분 흔 감 수품을 배부 어 생산의 가치 잇는 주 개성역에 어 오후네시 삼십 분에 개성역을 떠나서 저녁아홉시오십분에 경성역에 나렷는데 경성역에 오십명의 출영이 잇섯다



學務課長會議 諸問事項

기보=오는십일월 초순경에 총독부제일회의실에 개최할학무과장 회의에 대한것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어번회의무과장 회의는 전면적으로 시국을가미하야 자못지장엄할모양인데 그회의에서 자문(諮問)할사항은 다음과가다

一、時局認識徹底와 銃後實務完全

二、學校生徒、兒童、訓育改善及校下村落에對한 諸設實施事項

三、敎育刷新에關하야 道에서實施하는事項及將來計畫又는 將來計畫

四、學校敎育에對하야 一般民衆의 生活改善의 主旨實行徹底

天氣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흐린때는 흐리고 이나 대개는 개겟고냉세가조라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九度七
同 最低	零度八
今朝最低	零度五
今日正午	十一度六

金君三段跳에15米23 마라손에柳君一着

陸上五種目에新記錄作成 · 神宮奉贊大會閉幕

昨日의優勝者…上右는柳長春、左는金源權、中右는黃福仁、左는崔永生、下右는 張在禹(?)、左는金成學選手

第十三回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最終日의 第六回全朝鮮男女陸上選手權大會는 十七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엿는데 어날二千米마라손에는 柳長春(遞信)君이 一時間二十分 三十六秒의 同大會新記錄을作成하엿스며 女子二百米競走에는 大邱女高普의 金連石(全南)君이 十分二十九秒의 新記錄을지엇스며 投錨에는 白承旭(普專)君이 四十米五四를 投하야 여도한朝鮮新記錄을樹立하야 크게氣焰을吐하엿다 그리고 마라손에는 柳長春(遞信)君이 一時間二十分三十六秒의 大會新記錄을 作成하엿스며 女子二百米競走에서는 大邱女高普의 二十七秒五로大會新記錄을지엇고 三段跳의金源權(平南)은 十五米二三의朝鮮新記錄을 지엇는데 朝鮮人으로서 十五米를作成하기는 君이 嚆矢이며 以上의 三段跳의 記錄은 日本의 選手權大會記錄을 깨트리는 것으로 크다란收穫이엇다 神宮體育大會는 이로써 盛況裡에 閉幕하엿다

【中距離】1李常榮(平北)六〇秒四 2拓植(鐵道)一分一秒五 3李道熙(?)

【投槍】1李秉祿(京城)五四米五四 2龜久(京大)五二米七一 3朴重根(全南)四九米二五

【二百米決勝】1光田(遞信)三三秒一 2李京燮(普專)三三秒七 4吳相爽(慶北)

【女子走高跳】1小林(京女)一米三五 2李德敬(同德)一米三三 3本山(女一)

【女子五種競技】1本山(女)首都(?)二本點 2大隈(春川高女)七〇四點 3李秋子(女師)七三點 4李明熙(大邱女高)六五點

【五千米】1崔俊根(鐵道)一六分二八秒二 2金鍾植(遞信)一六分三七秒 3鄭有重(咸北) 4李泰慶(?)

【女子投圓盤】1山邊(海州高女)二六米九九 2李明照(槿花女高)二六米一〇 3高原(平中高女)二四米一米 4金榮信(海州女高)二〇米

【黃海】【女子二百米決勝】1金福實(女師)二九秒六 2森永(海高女)二九秒六 3鎌倉(二女) 4淸水(海州高女)

【中等八百米競走】1寶正日(李)最永、高最復、白五鉉、李哲藏(金谷)二分三四秒九 2培材二分 3金照植(?) 4崔爍相、金松澤(金照)二分四秒九 3京師(二) 4龍中

【마라손】柳長春(遞信)一時間二〇分三六秒(大會新記錄) 2吳東勳(鐵道)一時間二七分三秒 3金石祚(江原)一時間四〇分四〇秒 4李錦喆(培材)一時間四六分五九秒

【女子百米決勝】1佐佐木(一女)一三秒八 2金珠照(大邱女高) 3森永(海州高女) 4尹金玉(大邱女高)

【女子四百米決勝】1池田(一女)一分二秒九 2金福寶(女師)一分四秒一 3金順圭(槿花女高) 4徐德榮(槿花女高)

【女子二百米競走】1大邱女高普(尹金玉、具鳳順、石卜俊、金珠照)二七秒五(大會新記錄) 2一女 4龍中

【三段跳】1金源權(平南)一五米二三(朝鮮新記錄) 2金應鎭(延專)一四米〇三 3羅成(平南)一三米九〇 4金鴻泰(遞信)一三米八七

【四百米競走決勝】1遞信四四秒七 2鐵道四五秒

【十種競技】1鹿內(鐵道)五六三七點(大會新記錄) 2時田(鐵道)四四四四點 3白顯泰(咸南)四三四六點 4崔鎭一(江原)三五三四點

【千六百米競走決勝】1遞信三分四〇秒 2鐵道三分四三秒 3龍中

【女子四百米決勝】1大邱女高普(尹金玉、具鳳順、石卜俊、金珠照)五六秒五 2一女五七秒 一

【投錨槍決勝】1白承旭(普專)四〇米五四(朝鮮新記錄) 2印泰煥(培材)三六米七 3李永信(培材)三三米 4佐伯(慶北)二八米三〇

一般庭球選手權 京城崔權組優勝

朝鮮神宮體育大會軟式庭球一般男子選手權大會는 十七日午前九時半부터 東京城運動場에서 第三回戰을 行하엿는데 「코-드」에서 決勝戰에 드러가 京城의 崔永生、黃福仁 組가 勝利하엿다

【第二回戰】
京城(朴衡煥成) 4…2 京城(朴鍾孝)
北平(黃龍成) 4…0 城京(朴鍾均)
平北(文在明、李枝淳) 4…1 平北(洪承田)
城京(趙仁成) 4…0 海州(木永)
城京(朴鍾洛) 4…0 北平(朱大)
城京(白南世) 4…1 城京(金亨福)
城京(朴龍培) 4…1 城京(黃正瑾)
京城(先田) 4…0 南咸(宋鍾潤)
不戰一勝
城京(李洪) 4…0 京城(全北)
城京(尹鐘、崔隆龍) 4…2 南咸(李大哲、劉植)

【第四回戰】
南咸(天晃) 4…3 京城(元大)
京城(吉成) 4…1 城京(金台)
京城(李重基、梁在燦) 4…1 城京(川松)
京城(崔永生、黃福仁) 4…2 南平(郭成元)
京城(先田) 4…0 城京
京城(李順一、李鍾) 4…0 北慶
京城(吉仁) 4…1 南咸(天元)
京城(崔永生) 4…0 城京(梁在)
城京(黃福成) 4…1 北慶(內森)
京城(朴龍田) 4…2 慶京(朴正)
平北(文在明、李枝淳) 4…1 城京
城京(洪承杰) 4…0 城京(朴相文)

【第五回戰】
城京(黃泰成、朴龍善) 4…0 平北(文在明、李枝淳)
城京(李仁俊、隅田) 4…0 城京(先田)
城京(洪承杰、鄭士連) 4…2 城京(白南世、朴寅田)
城京(崔永生、黃福仁) 不戰一勝

【準決勝】
城京(崔永生、黃福仁) 4…3 城京(李仁俊、隅田)
城京(黃泰成、朴龍善) 4…2 城京(洪承杰、鄭士連)

【決勝戰】
城京(崔永生、黃福仁) 4…2 城京(黃泰成、朴龍善)

養正高普의 金張組制覇

朝鮮神宮體育大會中等庭球選手權大會는 十七日午前九時부터 運動場코-트에서 準決勝、決勝戰까지 行하얏는데 最後決勝戰인 養正의金成學、張在潤組와 宮川信의金允燮、崔權駿組는 京城運動場코-트에서行하야 四對二로 養正의金、張組가이겨서 栄冠을 차지하엿다

◇準準決勝
○信(金允燮、崔權駿) 4…1 東(申宅善、權重文)×
○徽文(裴裕孝、金漢興) 4…2 東(兪明植、李宗洙)×
○養正(金成學、張在潤) 4…3 東(裴永洪、金日尙)×
○全農(金炳植、崔炳學) 4…3 崇商(崔昌契、安泰榮)×

◇準決勝
○養正(張在潤) 4…3 東萊(金日尙)×
○信(金允燮、崔權駿) 4…2 徽文(裴裕孝、金漢興)×
○養正(張在潤) 4…3 全農(金炳植、崔炳學)×

◇決勝戰
○養正(金成學、張在潤) 4…2 信(金允燮、崔權駿)×

國際式卓球單式 普專周君優勝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國際式卓球戰은 十七日午前十時半부터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擧行하얏는데 다음과가튼戰績으로 複式戰에는 菊池、倉本組가優勝하엿스며 單式戰에는 普專의 周鍾洪君과 高商의 金高啓과 決勝戰에서 對戰케되여 周鍾洪君이優勝하엿다

【第一回戰】
京城 波太 2…0 京城 坂靖 本原
京城 高崎 洪 2…0 京城 許源明
京城(第二回戰) 金上野 立野 2…0 城京 沙田 村上
京城 西田 2…0 京城 普光 江竹
京城 第二 池太 2…0 京城 波太 遠田
京城 第太 2…0 京城 高崎 鐘洪
(準決勝) 南平 崔永淳 2…0 城京(高崎)
鐵京 金上野 立野 3…1 城京 西田
城京 第二 太池 3…0 南平 崔永淳
(決勝戰) 城京 單式 太池 3…0 鐵京(金上野)
周鍾洪(普專)…棄 高岸鎭(普專)

京城9 仁川3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一般部決勝 仁川對京城戰은 十七日午後二時五十七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安田(球)佐藤、佐田(壘)三氏審判下에 京城의先攻으로開始된바 結局九對三으로 京城軍이優勝하엿다

仁川 —〇〇二〇一〇〇〇 3
京城 八〇〇〇〇〇〇〇1 9

男子一般排球決勝

◇南軍投捕=(仁川)橘口、姜世熙 1河野(京城)宮本1森

鐵道 2(21 24 15 / 17 22 21)1 遞信

秦始皇이 長生不死의靈藥을 求하려고 貞男貞女五百人을 蓬萊山으로 보내인지 千有餘年인 今日까지 消息이漠然한問題를 科學이 極致로 發達된 今日의醫藥學은 果然不老長生의一端을 開拓하얏스며 更少年藥이元氣旺盛한動物의生血、內臟、尿、腎、腦에서 科學的으로 快히 發明되엿다 여러분깁버하야주십시오 元氣旺盛한 男性動物의腦、生殖腺의精分(ホルモン)인 젊어지는 名藥

補血强精强腦劑 コルモン 護縷蒙

本劑는元氣旺盛한動物의腦(腦)와生殖腺等精分에 人蔘과 鹿茸等에 가쓰로配劑하야 製造한藥인대 其效力은 博士나 專門大家가 數十萬名에 臨床實驗하야 效力을證明하얏스며 現在患者에 使用한다 누구나 認識하는바라 또服用한사람으로 効力의偉大한것을 實證하는感謝狀이 每日踏至하는中이라 滿天下人士여 誇張한廣告術에 속지마시고迅速한効力을 發揮하는コルモン(護縷蒙)을 一時라도 速히服用하야所期의目的을達하소서 コルモン(護縷蒙)은 元氣旺盛動物의生血과 生命을먹는신영과갓다 衰弱者여 躊躇는一大損失 至急으로 곳 コルモン(護縷蒙)으로 挽回하라!!

老人、壯年、青年이여 젊어지는名藥의惠澤을速히밧으시오

老人、壯年이コルモン을쓰면 氣力이 剛鐵가티굿세여지고 皮膚色은 붉어지며潤澤하야지고 精神은맑아저서 記憶力은 倍增하고 陽氣는젊은사람以上으로 挽回되여 人生快樂을 마음것즐길수잇습니다 精神內臟六腑가 均衡으로全部補합니다

壯年青年이コルモン을쓰면 早老를防備하고 恒常씩씩한 心志를 所持케하며 過色·過勞·腎氣不足·神經衰弱어 激退하야 青春의氣象이 保持되여萬事가自由自在로 成就할수엇습니다 事業을하는사람은 益益繁盛케 할수잇스며 學窓에잇는사람은 記憶力어 조와저서 社會에立志成功이빠르게됩니다

『호루몬』 新學說에依하면
『人類는나흘먹어 老衰하는것이아니라 生殖腺內分泌자缺乏함으로 老衰하는것이다 內分泌(호루몬)을旺盛시켜면如何한老人일지라도靑春의時代를復活하기可能하다』고 發表하얏습니다
全人類의最新最終斷的『호르몬』學說에立脚하야 コルモン『護縷蒙』은 一般社會에 多大한期待下에 太陽과如히出現한것이다

世間의耳目을 聳動시킨獨逸關西大生理學者『부른세카-르』氏와 墺國우인大學世界的大學者『스타어나하』博士의젊어지는 學說이發表되자 只今은바야흐로 全世界의學者는 勿論生物에까지『호루몬』療法이라는 最新最終斷的學說이擡頭하게되여 完然在來의臟器療法(動物의腦臟生肝服用、海狗腎服用、生血服用、人尿服用)을 幻想하게된다。

コルモン을 복용하는 즉일로나타나는효력
두뇌(頭腦)가 상쾌하아지고 식욕(食慾)이 증진되고 잠어잘오고노소 남녀를 물론하고 성(性)에 대한 묘미(妙味)를 맛볼것이다

좌겨와자는증세에효력절대보증
양기부족으로 고생하는사람에 早漏、性慾減退、陰萎、勃起力減退、精液缺乏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는사람에 頭痛、頭重、耳鳴、不眠症、精力、記憶力、決斷力等의減退
석늙어지는사람에 정력이감퇴하야 初老期에於한生殖腺退化、腦力減退、疲勞倦怠性亢進新陳代謝衰、循環障害의失調
번혈증으로 마르는사람에

慶尙北道金泉 趙笑泰
拜啓貴所益益發展을仰祝합니다 日前보내주신『コルモン』은 잘服用하야 意外多大한効果를 보앗기에簡單하나마 書信으로感謝를올니는바이올시다 生은오래동안 性慾減退、睡眠障害等으로 頭痛、全身倦怠로苦悶하야오든바 昭和五年七月京城帝國大學附屬醫院後藤內科에서診察을바든結果 性殖器性神經衰弱이라고 診斷이되여서 內服藥注射其他治療를受하얏스나 別로이効果라는것을 覺得치못하얏습니다 어리하야괴로운時間을 허여엇시보내든中 親友로서 ホルモン製劑『コルモン』이効力이多大하다니 一次試服하는것이어떠하나고 勸하얏습니다 그래서最後로コルモン을 로부터注文하야 服用한즉 二三日間은 何等의効力을알수업섯드니 四五日頃부터는 顯著히食慾이增進되고 恒常頭痛과頭重을感하든것이 가울하늘가티맑가지며 가벼워지는것을覺得하게되자 漸漸藥効가偉大한것에 熱中되여서 服用中攝生法을 遵守하고 熱心으로服藥을 繼續한結果不知不識間性慾減退와不眠症까지完全되여서 憂鬱과苦惱는一掃되여서 明朗한氣分으로 活動되게됨으로 再次蘇生한듯한感이생겻습니다

京城府十里町 金健熙
小生은衰弱한事務員으로 보고잇는사람이올시다. 幼時로괴로身體가健康한便인으로 醫藥을모르고 지나오든中 昨年부터酒飮이過하고 不規則한 生活을하엿슴이지 요새는健康치못하고 體重이減하얏스며 不眠症과神經衰弱이 有하야져 서여러가지藥品도 服用하얏스며 醫師에게도 診察을밧어보앗스나 何等이러하다는効力을 보지못하얏습니다 그래서氣分이憂鬱하고悲觀中

哲學博士 白性郁
나는滯歐中에도『호몬』製劑를服用하야 疲勞를防備하야 讀書를하얏다 그래서『호몬』製劑에는多大한興味와 眞劍한研究心을가저고잇습니다 그러든차에 最近某友人으로 ホルモン製劑コルモン이 効力이偉大하다는것을聞하고 說明書를請求하야見한즉
一、ホルモン單獨製劑가아니고 數種의『호몬』을服用하야 말하는것갓치 一種의『호몬』을服用하야어떠한疾病을治療한다는것은 無理가아닐가? 諸種의『호몬』을綜合的으로 使用치아니하면 所期의目的을達할수업다하고 明白한것이라

二、主成分을公開한것
三、『호몬』에漢藥을合劑시켯것
上記三條目에 內容을確信하고 服用을始作한結果今日까지 何等疲勞精力衰微를感치안코 深夜까지讀書와 原稿쓰기에 沒頭中이라

藥價低廉
六百錠入(二十日分) 五圓
九百錠入(三十日分) 七圓
一千八百錠入(六十日分) 十二圓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鮮滿總發賣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替口座京城二三〇九八番 電話光化門二三一四番 光化門局私書函五十番

早老를防備하고 恒常씩씩한心志를所持케하며 過色·過勞·腎氣不足·神經衰弱어激退하야 青春의氣象이 保持되여

입으로들어오는病을막고
精神을爽快케하는!

카오-루

口中殺菌劑

衛生口錠

튼튼한生活戰線의勇士가되실

여러분!

가오-루로 늘健康을確保하자

이시기에 맛당한 경제적인

德用瓶普及의大奉仕로

「防濕瓶」을贈呈하는

大計畫은 이달까지오니

이機會를 놋치지마시고 곳사주십시요

▼

慰問袋에 カオール(가오-루)

本劑는病菌의口中侵入을豫防하고疲勞를恢復、精神을爽快케하는効能이엣스므로陣中에서가장必要한藥品이라는것이證明되고잇습니다 誠意를다한慰問袋에꼭너어주십시요

進呈方法

德用瓶五十錢분혹은一圓분의어느것이든지사주서면販賣店에서即時빠짐업서進呈합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携帶用防濕瓶入	(廿五錢)	三百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茶金石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防濕瓶

專賣特許一〇〇六六號 意匠登錄旣願

마개는나사로되지안허서簡單히開閉되며 携帶에 자못便利하고 이容器를使用하시면 언제라도 淸新한氣分으로 カオール를 服用하실수 잇습니다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우리차지

백보다큰하나
쥐는 고양이아페꼼
짝 못한다。
큰쥐 스무마리하고
고양이하고 싸운다면
쥐가 이기겟지。 그러
치만 쥐는 백마리가
잇서도 고양이한마리
한데 못덤빈다。
(공주사립 정확순)

몸자세가납바도 먼뎃걸못보게돼

근시는체격에병바든에에게만어
어린이의눈을직히자

먼데것을 못보는눈 어겨을근시안이라고하는데 이원연을 어느학자는 유전이라고하고 또어느학자는 유전이아니라 전혀외부의원인으로 된다고하고 또다른학자는 유전과 외부의 원인이 겹치되는것이라고 햇습니다 어려케말이만흔데 누구의말이 맛는지 아직모릅니다。

×

『레빈슨온』이라는 독일의 학자는 원숭이를 목을졸러매어 거꾸로 매다라노코바론곳압헤 먹을것을 노아주고 이것만바라보게햇드랍니다。사람으로치면 몸자세를 납부게가지고 무엇을 눈압헤 밧작가지히 드리대고일하는셈이지요 그랫드니 원숭이는 그만근시가되고말드랍니다。그 학자는 이연구를 보고 하면서 근시는 외부의 원인으로되는 것이라고햇습니다。

또『체르닝』이라는학자는 도회지와 지방의근시도와그 분포상태를 조사햇는데 겨기에보면 고도의근시 즉 길흔도수의안경을 쓰게되는근시는 도회나 농촌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보다조곰 못한근시나와 아주가벼운 근시는 도회지에 만타고햇습니다。그래서 그학자는 말하기를 도회지에서는 바누질과 글읽기 사무보기 이러한 눈쓰는일이 가차히대게 되는일을 하는사람가운데에 근시가 만흔데 일하는동에는 물론 광선관계가 납부고 몸자세가 납부고 몸자세가 납부니만치 위장이납버 몸이건강치 못하게되니 말하자면 온전신을 납부게 하는것이되고 또도회지 사람에게 독특한 밧작마르고 키간 특유한체질 가튼것이 근시의 원인이라고 단언을 햇습니다。요컨대 근시안은 몸의 위치를 잘못쓰는사람이라든지 지금말한 눈에대해서 나분일을 한다든지해서 근시에 걸리기도 쉽고 걸리게도되는것입니다。소학생들의 체격검사표를 보드래도 갑、을병 이러케등수가잇는 중에서 근시안이만키는체격에병바든아이에게 만습니다。

그러고보니 근시는 바게서 오는 이러한 납분 조건을 업센다면 때만히 업서질것은 정한리치입니다 그러므로 책상에 향해올때에는고개를 너무 푸부려서 얼굴에괴가 모이도록 하지말고 가슴을 펴고 똑바두안서일하기에 편한자세를 가서야 됩니다。

또 책을읽을때에 책상우에그대로 펼치고 보느니보다는 책버리는것에 오려노아 눈의조절 작용이지나치게 괴로움이 업도록 해야 합니다 책상우에 펼처노코 보면 우의것을 볼때와 아래것을볼때가 거리관계로자연다르게됩니다。따라서 조절기능이 금시금시로 변하느니만콤 대단히눈이 괴로하게 됩니다。이러한짓을 무리로 계속하면 가성근시(假性近視)라는것이 되고맙니다。

그런속 책과눈과의 거리는 절대로 삼십센치이상약한자이상이래야 됩니다。

또한가지 함께서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조명을 들빛이 너무어두워도 근시가됩니다。사실와론다면 오십센치로부터 륙십센치 백와트타면 오십센치 이상일에물의 거리에서 비칠일입니다。그러는데도 광선의직사를피하고 책에 비처 반사되는 센광선이 비트러지지 안토록 해야합니다。

그럼으로 광선은 외쪽윈쪽우방 또는 아수호바에서 오는것이조코 책상을 창아메 밧작대노코 책읽는것도 광선이 직접눈에 드러가서안됩니다。리상적으로 말하면 왼쪽뒤에서 비치는것이 조캣습니다。

마지막으로——때때 먼데것을 바라보는활해서 조절기능을 쉬게하는것이 조흡니다。

얼골이거치는데 게란으로막는미용법

가을도기러가고 찬바람이 불기시작하면 살결이거칠은은거적이들어갑니다 찬바람이 당신의살결을거칠게만드러버립니다

이것은 게란의흰자위와노른자위로서 당신의거친살결을 정돈하는법을 가르켜드리겟습니다。

우선 게란흰자위만을드러내입니다。한번하는데 게란반개의 흰자위면 충분합니다

흰자위를 손바닥으로 된얼골에문질러칠하고 잠간동안두면 털구녕속에 드러잇는얼골때가 모다흡수되여버립니다 그리하야 나중에라올에물을처서이여서 닥거두면 살결도부드러워지고 화장하기도 편하합니다。

그다음방법은 흰자위와노른자위를 함께쓰는방법입니다 우선게란노른자위를 잘가라서 탈지면으로 얼골에바르고 그것이마르기전에얼른흰자위를 더러칠합니다。한참지난뒤에 이것이마르면 얼골이 조일것입니다 그때 물수건으로 닥거버리십시요。

전에 흰자위만쓰는방법은 주장 털구녕에드러잇는때를 빼는데효과가잇고 나중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함께쓰는법은 간단한미용술로 효과적입니다。

어느편이나 살결이 거치는데 예방이되는것은 물론 기름기가만흔사람의 머용기초도됩니다。

스크랩북

신문이나잡지에난것 오려부치는법

엇던녀류작가는이십년동안에 일만권의『스크랩북』을작만햇다

글을 쓰는 문사(文士)의 부인보게는 편리할것도 업거니와 날마다 신문에 나는것가운데에서나 중에 두엇다가 참고될것을 오려서 부치는 스크랩북은 대단히 필요하겟읍니다 그러나스크랩북을 만드는격식을 모르고함부로 오려부치면 정리상대단히 곤난할적이잇습니다

동경의 생전화세(生田花世)가튼여류소설가는 이십년동안에스크랩북을 만권이나 작만해가지고잇다하니 굉장하지안습니까

신문에 나는것은 그냥오려서 부치면 편리하게 정리가되기는하나 잡지가튼데서 오려부치기는 대단히 거북한것입니다。

그나마 길다라케 몃페이지식 되는 글은 오려서 부치면 한면쪽은 그만볼수가 업게되니한장의 조히에 쓰인 앞뒤글을모다 읽을수잇도록 스크랩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나여페쫄칠을하야가지고 그냥책장처럼부처두는게 보통이나 어러케 해노흐면 펼처볼때 책장이 날려서 불편합니다

보통은 스크랩북 책장에 잘지어서 또는 책장보담 조곰적게 구녕을오려고 잡지에서 뜨든책장의 여백에 풀칠을하야 이네모진구녕에 발너부치면 그냥안밧을 한거번에 읽을수잇도록됩니다더욱 스크랩북체제로보아서도 대단히 조흡니다

그다음에는 분류를 하자면 애초에 분류를 하지안코 그냥한책에 부쳐두엇다가는 나종에 차저보기힘들뿐만안이라 스크랩·북의 효과가감해집니다

가령 정치 경제 문학등으로 다각각제목을 따로한다던지 문학가운데도 세 소설 희곡 수필등으로분류를 하야 만들지안흐면안됩니다

어러케 분류를하야 만들때에는 스크랩 북표지빗갈은 종류마다 다르게 하던지 그러치안흐면 모다 한빗갈로 하야 분류한 종류의 카-드를 등에부처두어도 조흡니다

그리고 제일명심해야할것은 흔히보면 한달이나 두달동안에오려서두엇다가 한거번에 부치는데 이것은 스크랩을 하지못할증조입니다

보다는 날마다 그날치그날치를 차근차근정리해버리도록해야합니다

이무서운것을 길러서

악어껍질은 핸드빽으로도 아소 고급품에 쓰입니다 두툴두툴한 흠을 그냥 남겨두고 만든것이라 그로테스크하기 짝이업습니다。

이리하야 자축으로 만드는물건이면 의레히 악어가축으로만든것을 첫째로 칩니다

악어는 열대지방의 숩이나개울에 사는짐승인데 악어껍질이 비싸지니 어떠케 재마다 악어를 잡어볼수가 잇습니까 비싼 악어껍질이라 여것을 집에서길너가지고 제자리에서 껍질을벗겨 핸드빽도 만들고 가방 구두도 저어신으라는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작년은 일본자국의 여론상황이라는데다까라쓰까에엇는악어양식장입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한것이 지금은 여조성적이조화서 구경군에게 입장료를받고 키워서는 껍질을 벗겨팔기로 되엿습니다

기후와 풍토가 몹쓸곳에도이러케 악어는길러집니다 여러분도 접언조고만한못을 만드러노코 악어색기를 길러볼생각은업습니까 이러케되면 나종에 악어껍질이 소가죽갑보다 더헐해질지도 모릅니다。

편리한마푸백

밥랑회보다리이나 서간드보다리가터보이나 실상은이것이 류행의도시뉴-욕의 핸드빽이상품인『마푸백』입니다『다프티와『핸드빽』을 한데어저서만든것인데 벨베트가죽같으로 꽉하게만들어붙인다

이것은 물건을사서 너허가지고 관이기도하며 주머니일를든수상이면 그속에손을너코만이므로 손이스리지안코 일거양득입니다

그리고 그크기는 상당한관이너 로 저당사칼때에거 기 입니다

『스테이풀』옷감은 빨래할때주의할일

한참때 인조견모양으로 요사이 굉장히 흥왕한 것은 스테풀파이매입니다。그것도 결국 인조견과가티 무명것이나 마찬가지의 식물섬유(植物纖維)로서 그것을 세탁할때도 지체로는 무명것이나 마찬가지의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인조견보담도 솔도 흡수한것이 잇지요 그럼 모르셧다가는 큰낭패입니다。

(1)무명이나『아사』동옷은 올을면을수록 질기어 지지안한은 이것은 인견과가티 도리어 약해집니다。더더구나 북북 문질르거나 부비대다가는 전부 버리게 됩니다。나무판에 쪽 펴노코 비누솔을칠해서 솔로 끔게 문질러야합니다。솔로 될수잇는대로 고운 솔이 조흡니다。

(2)빗갈잇는것은 그렇게 엽서도안것은 나쁜 물스갈을 드려노흔것이 만습니다。그런것은 물이 때때 번지거나 고만 빼저 버리니까 그것으로재입니다。몬저 한모퉁이에 물을 무치어 흰 흥겁에 문질러 보십시요 그래서 물이번지거든 물스감이 번지지안토록 하뒤 빼십시요。

(3)산(酸)에 몹시 약합니다 해여 초가든것이 떠러지지안게 수의도 하시려니와 거기무덤든 사리도 잘 빼지도록 주의하서야 합니다。

中篇小說 人生特急 【13】

盧春城 作 崔根培 畵

清算(三)

물빗가티 서늘한 가을날이다。하늘은 파란 호수(湖水)를 옴겨노흔듯이 맑고 정하다。새로핀 하얀자판가튼 구름한점이 저편남쪽에서 둥실거리고 잇지안흔가?

영식은 베란다에서 담배를한대피고 유장한기분으로 남쪽하늘을 바라보고잇다。

이때적은딸 순옥이가 바르르『베란다』로 쪼차나와서

『아부저!』

하고품에안긴다。영식은

『오 우리순옥이가?』

하고 그 하얀 토끼가티 오동포동실하고 귀여운 순옥이를 얼른 안어 무릅에 안쳣다。그리고 한손으로 머리를 쓰다드면서

『우리순옥이 밥만히먹엇나?』

『얘!파밥먹고 장조림먹고 송이국먹고……이거봐……』

순옥은 배를 내여밀면서

『이러케 만히 먹엇서……』

하고 엇석을 떨엇다。

『에이 만히두 먹엇네 배가、통이만하이。』

영식은 손으로 배를 한번 튀기고 그를 다시 껴안엇다。

『아부지!』

『웨?……』

『나、또나쓰 사줘?……』

『올 사주지……』

『그리고 과씨두 사주고……』

『입 사주지 다 사주지……』

영식은 귀여워 못 친개다는듯이 순옥이뺨에 입을 마첫다。

영식은 원래 어린애를 조아하지마는 더욱이 그에 어머니가 비참한 최후를 마친후에는 그에게한칭 더 사랑하엿다。지금은 영식의 어머니가 애를 거두고 집안살림을 마라하게되엿다。자기가 못할는를하고 또는 그에를 불상하게 엽는가려서 넘우치는때가 한두번이 아니엿다 순옥은 머리를 끄덕하고 다시 물엇다。

『아부지!』

『웨?』

하고 다시 고개를드고

『엄마 어데갓서!』

『웨그래!』

예원한듯이 또 물엇다。어느듯 순옥의눈에는 눈물이 매첫다。

『먼데갓지……』

『언제와……』

『오래 오래 잇서야오지……』

순옥은 눈에 눈물을 담은채 고개를 숙엿다。영식도 가슴에 눈물이 도는듯하여 그만 고개를 돌렷다。사실 영식의 안해가 올동자살한후에 어린애들에게는 멀리 어데가서 오래동안 잇서야 온다고 속인것이다。얼마후에 순옥은 자기방으로 도라갓다 그러나 영식은 여전히『베란다』에 안저서 혼자 사렴에 잠기고 잇섯다

그의머리에는 량심이 자질을 하게되엿다。

지금의 생활을 청산하자。지금의 비참한생활은 결코 사람의 정당할일이 아니다。더구나정숙한 내안해를 죽인이는 내가안이냐?나는 내안해의 혼을 위로하는 의미에서도 지금의 생활을 청산하고 갑잇는 생활을하여야한다——영식은 혼자추억을 쥐고 입을 다물엇다。그의얼굴에는 어떤구든 결심의빗이 지나갓다。그가 언제든지 무슨큰일을 시작할때에는 의레히 입을다물고 이를 가는 버릇이잇다。베해전 금광을 시작할때에도 입을 다물고 이를간것이다

영식은 철통을 모다 소제하고 새생활을 시작하자고 자기량심에 향하여 다짐히 맹서하엿다 더구나 요새 기생첩집에는 머리긴 청년이 자주 출입한다는 말이 하인들의 엽에서 자주 전하지 안는가?그는 이 기생첩에게 어면구실을 잡어가지고 몬저 그여자부터 청되를 나려야한다고 생각하엿다。기생년이란 산전、수전 다 겪근 구렁이라 잘못 어물거리다가는 된퉁을 맛고야 만다고생각하엿다。그리고 일본여자는 한동안 가지안흐면 또 나간다고 뭇칠을 쌀려이니 그때에 방작 나가라고 떼밀고 또 첩원이나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엿다。그러나 여학생은 그 고상한 품격이라든지 또는 놀제하는 그런 순실한점으로 보아을 조어하고 또는두엇을 연구선도지 현모를 보아 정식안해로 떼여드려도 조타고 생각하엿다。

영식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옷을 가라입은후 기생첩집으로 발거름을 옴겻다。언국동 네거리를 걸어 총독부아국지나 사직동으로 향하엿다。골목과、골목을 돌어 커다란 일각문을 다른한기와집으로 드러갓다。마칠 추월은 잇섯다。

『래일은 해가 서에서 뜨겟네。어제오시고 또 오늘 오시여……』

노상 아양을 피우며 영식의손을잡아 방으로 끄러드렷다。영식은 속으로 요런하고 생각하면서도 아주 천연스런 태도로

『나 오늘밤 대판을 가게됏서……』

『아이고 웨 갑작스러워……』

『그러면 언제 오시나요。왼 오래 걸려신다면 쓸쓸해서……』

『아주 기통을 술을 바르는셈이다。

『아마 열흘은 걸릴걸 아직것 명사자식이 안 끄처어나서……』

영식은 담배를 꺼내여 한대부처 물엇다。

ウテナ(雪印)バニシングクリーム
우데나 바니싱 크림

銃後女性의몸단장은
젊고·高尙하고·아름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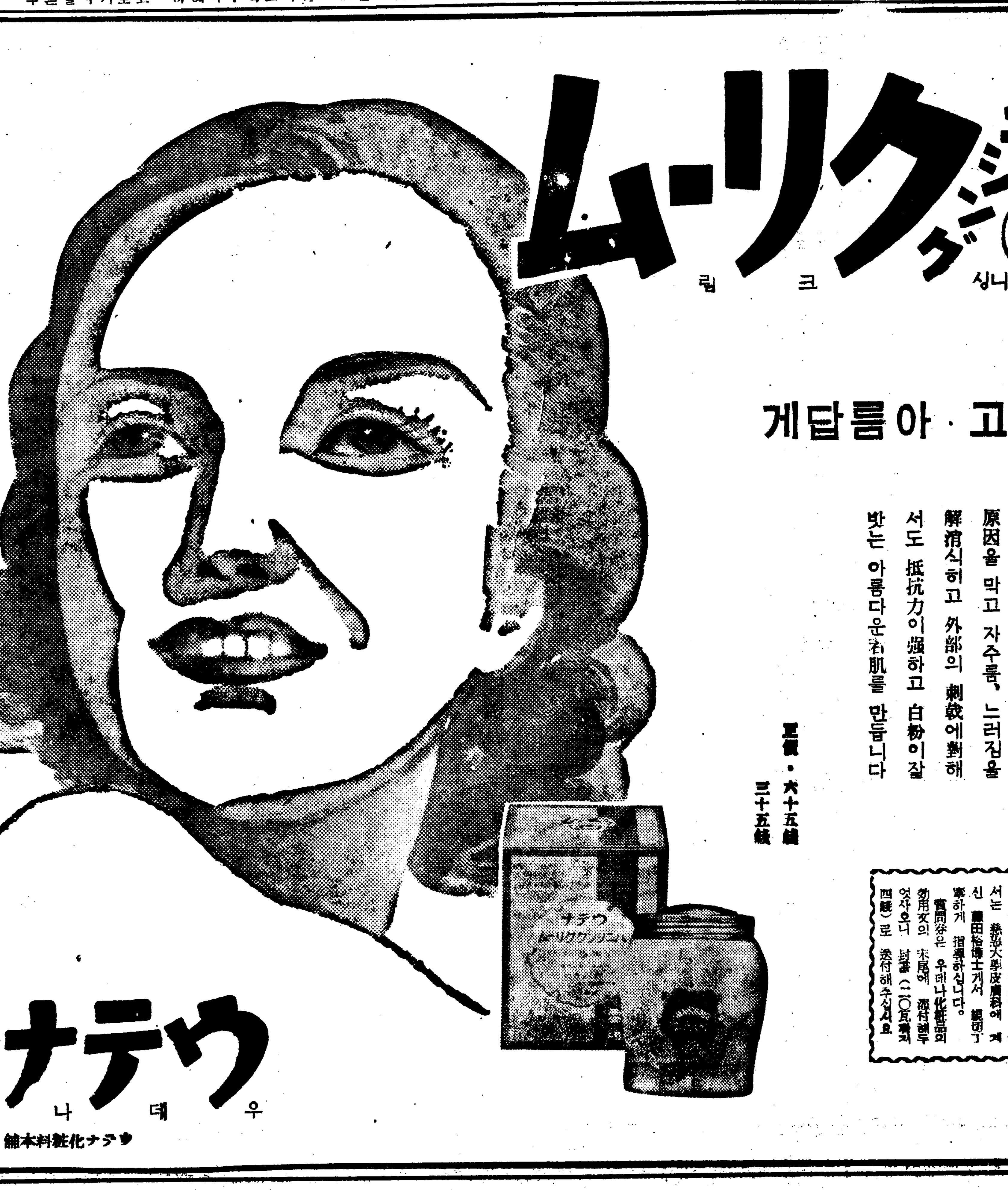
이整肌料가 若肌의魅力을만드러

가을도깁허감을따라 살거이의危機는차저왓습니다! 이危機에서 당신의若肌을守護하기는簡單합니다! 朝夕의손질에 우데나바니싱만쓰신다면!

우데나바니싱은 純質無脂肪性이므로 산뜻하게 살결에녹아드러 獨自의美肌素를 皮膚組織에 滲透식혀서 여드름、부름의原因을 막고 자주름、느러짐을解消식히고 外部의 刺戟에對해서도 抵抗力이强하고 白粉이잘밧는 아름다운若肌를 만듬니다

定價·六十五錢 三十五錢

「美容相談部」를 利用하십시요
美容에關해서 未審한點을 化粧에 괴로워하는이는 無料로 質問해주십시요。化粧一般은 美容家 마야 片岡先生 皮膚衛生에 對해서는 慈惠大學皮膚科에 계신 藤田恰博士께서 親切丁寧하게 指導하십니다。質問券은 우데나化粧品의 效用文의 末尾에 添付해두엇사오니 封書(二〇五錢까지 四錢)로 送付해주십시요



우데나 가루白粉은 본살의 色調를살려서 個性美를 發揮합니다!

★明朗八色—
白·黃·肉色·분홍
濃黃·나추럴
오-클一號·二號
正價·五十五錢·三十錢

ウテナ粉白粉
우데나

ウテナ化粧料本舖 株式會社 久保政吉商店

鍾磬

問題의 核心

獨角生

묵은 問題를 다시 새삼스럽게 提起하는데는 오즉 두가지의 理由에 限해서만 우리로서 그 意義를 認定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는 어떤 必要아래 問題의 그 問題를 回顧乃至 再認식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視角아래서 묵은問題를 解決짓는것이다。오늘날 復古主義가 왜 盛行하느냐 하면 그건 前者의 例요 人道主義、個人主義等이 왜 되푸리되느냐하면 그건 後者의 例이다。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注意할것은 어느편으로나 다 고대로가 아니라 벌서 거기는 現世代가 [illegible] 世代的 [illegible] 아래서 反映 乃至 一定한 [illegible] 되는 그것이다。現世代的 [illegible] 것을 理解치 못하고는 主張하는 편이나 反對하는 편이나 한 가지 [illegible]이다。

同一意味한 노릇이 知識人들 그中에도 文人들은 두말할것도 업거니와 모르면서 能히 千兵萬馬를 比較하야 [illegible] 妖術에 가까운 才操를 가지고잇다。그러한 才操로서는 無意味한 主張이나 反對를 가저서도 能히 남의 耳目을 欺瞞케하는同時에 도能히 自己自身조차 欺瞞되고 마는것이다。問題의 核心은 言辭에 잇지안코 文字에 잇지안코 오직 現實에 잇다는 것을 알아야한다。現實을 無視한 그곳에는 모든 言論가 空虛이요 모든 無益이 生하다。例컨댄 年來의 人道主義의 提唱도 귀가 닷도록 들엇고 또 그 反對의 『아지』도 신물이 나도록 보앗다。그것이 조금지 나빳든지 그런점 쌔두고 이제부터는 그主義에 忠實한 그래서 어고장의 그主張을 代表할만한 作品이라도 하나 가저 보고도 십다는것이다。批評家가 作家를 指導시키는지 作家가 批評家를 指導시키는지 그 關係는 無論하게 어려우되 어느편으로도 無意味한 事實이다。이事實이 곳 우리文壇의 無氣力을 結果하는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를 다하게 걱정되지 아니치 못할 現象이다。批評家여! 現實에 좀더 발을 부치어 주지안하려는가? 作家여! 現實을 좀더 直觀해주지 안하려는가? 그러나 [illegible] 그러리라。公平한 눈으로 보아서 그 罪는 [illegible]의 半半이다。한편은 空中으로 또 한편은 [illegible] 人속으로 거어 들어서 다 現實로부터 [illegible]하고 엇는것이다。

× × ×

學藝

局外人의 一家言 ④
朝鮮語學의 現狀과 將來 (下)

金廷漢

그리고 그런部類의敎員裏는不問可知지만 比較的 어方面에關心을 가지는듯한분으로서도 자칫하면 朝鮮語란科目을 마치더리고온子息처럼 賤待하기가 쉽고 따라서

(敎)(材) 硏究도 잘안키 때문에 抱腹絶倒할 實話를 外部社會에까지내보내는수가 許多하다。

如何튼 筆者는 筆者가 直接間接으로 見聞한 여러가지 實情으로부터 미루어서 말할수가 잇다면 現下初等敎員의 半數以上이 事實上 朝鮮語에 對하야 關心不足과 誠意不足이란것을 放言하기에 躊躇치안는다。半數以上의 關心不足! 이어찌寒心할現實이 아니랴? 우리는 火急히 文化人의良心을 喚起하야 辛辣한 自己批判을 하는同時에『나ㅣ체』가 讚生한『無氣力한生活』을 淸算하고 참된人間敎育者의 態度로돌아가야만 될것이다。

二、文藝家들로서

筆者는 지난달 本紙本面에 揭載된 洪起文氏의『文壇人에 向한 提議』란 一文을 읽으면서 數三次 혼자서 얼굴을 붉히엿다。

現下文壇人의 言語에對하야 無誠意無責任한것을 懇曲히 實例까지 드러가면서 指摘해주엇기 대문이다。筆者는 勿論 所謂文壇人이못되나

(聞)(或) 서푼짜리 글인는 버릇을 가 [illegible] 더욱 붓그러움을 참을수 업섯다。처음에는『나는 所謂文壇人이 아니니깐』하는 생각을하고 읽어나 갓드니 웬걸 알고보니깐 文壇名士보다 되려 筆者와같은 서푼짜리作文家를 두고 訓戒한點이 만흔것가탓슴으로 卒然히未成品들이 緊을 文壇人에게 미치게햇다고 생각하엿다。그러나 또 자세히 따저보아 文壇人中에도 서푼짜리에서 그리버서나지못한 無誠意漢이 잇다는것을 發見할때는 所謂文壇이란것이 도리어 後進文學靑年을 爲하야 弊를 기치지나 안는냐고도 생각되엿다。

그것如何는 文學이言語藝術이고 言語가 文學創作의 唯一한 手段物인즉 적어도 文學에 從事하는사람으로서는 相當히 言語에 [illegible] 常識以下의 問題이다。그러고 한言語의 美化란 오로지 그言語를使用하는 文人의 特殊한 義務에屬한바란것을 肯定한다면 우리말에 對한

(關)(心) 을 강히하고서 그를 支持하고 言語活動을 傳承하고 創造하는 言語活動을 하지안홀수업슬것이다。勿論여

漢詩 (選者 [illegible])

題 秋夕
押 明

佳作 江西郡咸從面社稷洞 李明玳

秋半佳辰晚景晴·
星河西倒鴈南征·
安知遠地無風雨·
最愛今宵得月明·
新稻杯盤豊歲樂·
故山夢寐旅人情·
家家醉飽閑無事·
八月仙緣寄此生·

테꺼지 이러한努力이 全然업섯다는것은 아니다。좀더 誠意잇는 努力을 해야된다는것이다。몃種안되는 古典이나마 좀더 精密히 뜨더보아서 朝鮮語와朝鮮文의 獨特한 品位와 美를 充分히 把握한다음에 어本質的特殊性을 죽이지안는 限에서 다시文章의 새로운 時代性을 發見하도록 힘쓰며 古語의復活도 新語의 造成利用도 勿論 이러한見地에서 勵行해야될것이다。그러나 한가지 여기서 注意해야될것은 文人바다시 言語學者가 아닌만큼 言語學的傳統이라든가 要求를 어데까지라도 追從할必要는 업다는것이다。假令 言語學者들이『的字文體』에 對하야 異議를내드라도 그것을參考로 들어줄어지 그러라고그것의社會性과

(時)(代) [illegible] 을 먹으려볼 必要는 업다는것이다。그야勿論 앙향的價値的營養食物로는 다업을 한부로 내다쓰는것도 큰誤謬이겟지만。

表現技術에限하야 은言의 우리文學現狀을 들어볼때 文體라든가 文法에關해서도勿論 硏磨硏究해야될줄 至極히만흐나 그보다筆者는 語彙의豊富한蒐集과 그整理를 더욱 急務로알고 또重要視한다。아무리 熟達한技術工이라도 材料가 具備치못하면 利器를 맨들지못하는것과마찬가지로 아무리 文法에疏通하고 文才가잇는사람이라도 文章을構成하는 語彙가 不足해서는 到底히 名文을 作成할수가 업기때문이다。더구나 文學이란것이 法律條文이라든가 官公署의 公文과 달러서 人間의 微妙한 部面과 自然의奇異한動靜을 描寫叙述치안흘수업는것만큼 語彙의準備야말로 文學的表現의 先決條件이 아닐수업다。

이에關한一例를 든다면 (英)(文) 壇의老將『하ㅣ디』翁은 한 메지에 거는形容詞를 두번쓰지

안으려고 저진에를 다씁다는데 그저 더더노코 그것을 [illegible]하는것도 [illegible] 이면은 겨우四五千語로서 日常의 [illegible]를 할수잇다는 英語『밀톤』은 八千語『쉑스피어』는 一萬五千語나 使用햇다는것을 우리文壇人도 한번記憶해들必要가 잇지안흘까?

그러나 이것만으로서 決코 文學이라것이 生産되는것이 아닌즉—하지만 그만두고。

三、結語

비록 [illegible]는 혜딘바이나、[illegible]이 [illegible]해진것을뿐더러 制限된 紙面이니 簡略히 [illegible]나 적어서 言語學界諸氏의 指導와努力어나 請해두자。

(가) 現在使用되고잇는 普通學校朝鮮語讀本에 나타난 綴字法을 統一된 한글案과 一致식히도록 힘쓸것。

(나) 朝鮮語敎授書나 普通學校朝鮮語敎授

(日)(案) 서 普通學校朝鮮語讀本改編으로 [illegible]것

(다) 初等學校兒童들에게 읽힐만한少年讀物의 刊行等

初等敎員으로서의希望、—

(가) 朝鮮語辭典의 完成促進、

(나) 朝鮮語로된動物圖鑑、植物圖鑑의刊行、

(다) 一般民衆으로하여금 朝鮮語에對한關心을 좀더크게가지도록 巡廻講演會等을 힘써가질것。

多少 無理한點이 만흐나、以上을 希望해두며 筆者의罪를 謝한다。(了)

雜記帳

이중전·이색바 그=出=處

(말한理近장가)

서로다른 두말이 接觸되는때에는 어떠한말도 아니요 저말도 아닌 一種의 新奇한 單語가 만히 생기게된다。上海의 피죤잉글리슈는 그조흔 例로서 그건 漢語도 아니것가치 英語도아닌 한개의 獨特한말이다。피죤잉글리슈처럼 거의 한言語를 形成치는 못하얏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네말에도 그와 類似한·重語를 맨마디는 가지고 잇는것이다。卽 바삭이、전중이、제발이等의 말을 이편에서는 和語로알고、또저편에서는 朝鮮語로 알고 쓰지만은 실상 和語도 아닌것가치 朝鮮의 固有한 말도 아닌 一種의 新語다。그러면 大體 그러한 말들은 어떠케 어되서 생기엇슬까? 老人의 이야기로서 가장 미덤직한 說明을 적어 보이겟다。

(一)바삭이。맨처음 玄海灘을 건너서 온 商人들과 본고장의 商人들사이에는 砂器의 賣買가 가장 興盛햇는데 그中 깨어진 砂器 卽 破砂器는 全然 사고 팔지를 못하얏다。그도 그럴것이 朝鮮서는 조금만 간 砂器도 床에 노치를 안하니까 設使破損價로 친다고하더라도 소용이업는 물건을 살까닭이업다。거기서 破砂器는 뜻으로 못쓸·몹쓸것을 意味하게 되고 音으로 바사기와서 變한것이라고한다。처음에는 어떤데에서 어떤말을 흉내낸」라고 音이 變한것이 어떤데에서는 다시 저편말을 흉내내는고 그 變한 音대로 구덧다고 推測된다。

(二)전중이。工事請負의 田中組라는 한때가 朝鮮을 나왓스니 그들의 옷우에 田中組라는 글씨가 백혀 잇섯서 그때 一般은 그들을『田中이』라고 불러섯다。그러다가 現代式 罪囚들을 가두엇는데 그들의 監獄에 생기고 그속에의 衣服은 田中組라고 벽혀저는 안하얏슬망정 田中組의 人夫들과 恰似하얏섯다。그래서 罪囚까지도『田中이』라고 부르다가 本來의『田中』이는 그럭저럭 여저버리고 罪囚만을 오로지『田中이』라고하게 되얏다고한다。그때 나온 田中組가 마치 靑色옷(前日에는 旣決囚가 靑色옷)을 입엇든지 모르나 衣服만은 近似히 보엿슬법하다。

(三)제발이。제발뭐라는『제발』에『이』를 부치어 名詞를 맨든모냥이다。서투른 朝鮮語에서 그러한 新語가 생긴듯하다。(筏山)

創作과 態度

世界觀의 再建을 爲하야 (四)

任淳得

우리는 豐作이나 고ㅣ고리보다 더훨신큰 限界에서 生活하고잇다。우리는 藝術을버거워하야엽은外套를 벗겨우고 베잉흘자이어업는處女은 조꿈도할必要가업슴은 明白하다。豐작이나 고ㅣ고리에게는 아직、倒外套자 發見되지안헛거나 或은 求하지안코 그들의藝術家的機會가 外套의役割을 多幸히하엿섯다。지금에잇는 外套를 拒否하고 오양깐의언치를擇한다면 그의일홈은 作家에게서 世界觀을 拒否하는者이다。

그는말하다 作家에게 必要한것은 作家的良心이다라고。어떼에 限해서는올타。그러나 世界觀을 拒否하고良心을 代置하는것은ㅣ種의詐欺다。

良心이라는것은 말하자면 個人의現在의 能力과事情의 本質的制限의範圍內에서 自己의價値意識에다 어느統一을주려하는要求그리고 그要求의發達과完成을그것의現實的內容으로하는것이라고 볼수잇다。그러므로 當者에게는 良心은 形式的으로는 單純하지 [illegible]內容的으로는 知識、推究、發明、論證等을 意味하고 具體化함에서 科學的、哲學的判斷과 良心的判斷과의差는 究竟目的에代表되는 本質上에서는업계된다。그러나 作家의良心이 [illegible] 하엿다。그가 哲學과 世界觀을 排斥함으로써 말하는良心은 人格(Person)에잇서서의 命令者로서의 倫理的槪念이아니다。이 良心에잇서서는 直覺作의全部的 位置와意義가 아무런 社會性과의 關聯이업시 主觀속에서 思惟的으로 思惟되여젓슴뿐이다。或是는 그尊重은 單純히 어느範疇的인 意味에서 良心이라는 單語를 使用하엿슬지도 몰으지만 이것은 그냥 우서버리기에도 너머나 여러지엇다。이를러면 介ㅣ벨드가 그의 至極한困窮에 고생하면서도 自己의藝術的自由를爲하야 어느貴族의 招聘에도 應하지 아니하엿는것은 그의藝術家的良心의 命令에依한것이라고 볼수잇지만 이것은決코 主觀的直覺作의 定言命法에 依하는것이 아님은 明白하다。그러므로 어 民衆音樂家가 貴族的藝術의 파트론을 물리친것을 非社會的·個人的、主觀的『良心』에 依한行爲라고 볼수업고 一定한 介베르의 藝術家的態度에서 나온것、따라서 介베르가實狀 가저던基督敎的 世界觀의優秀한 批判性에 依據햇던것을沒却할수는업는것이다。

世界觀과의 絶緣分離에잇서서의作家的良心은 結局 딘센스에지내지안는다。그러므로 世界觀과 對立식혀노은『良心』은 아무런 倫理的槪念으로서도 主張할수업다。

〃太初에 로고스가 잇섯나니라……太初에『良心』이 잇섯나니라 그것은 딘센스엿나니라!〃

『良心的인作家』라는말이 잇다 이말에서 우리는 眞實을위하야 眞摯하게거러가는 崇敬할만한作家를 發見한다。그의 文學을通하야 眞實을把握하려는 그의 苦鬪가 눈아메歷歷히 보이는것갓다。그는 盲膜이아프도록 現實에서 眞實한것을 分簡해내이려고 視力을 集中한다 想像力보다 已往의敎養이 最高의緊張아래에잇는 觀察의客觀性에의 志向과 格鬪하고 卑俗한것 歪曲된것을 그래도 太陽에向하야 빼친다。그는 아직도 괴로운길을 걷고잇다……우리는 그자 드러어 最尙의 世界觀이 精神을 通하야 보게되는날을 눈아메 선하게 보는것갓다。

三紀行

匡麗歸來記

일허버린故鄉을차저서 (三)

李秉珏

匡廬山

秀那!

匡廬山은 우리마을 뒤ㅅ山이오 이山허리에는 크다란 잔디밧치 運動場처럼 널려잇소 여기에안저서마을을 나려다보면 마을가운데일막 한눈에 보이오 이山은 내어린몸을 걸러주엇고 내어린靈魂은이山에서 자라낫소。

나는 이잔디밧테누어서 少年다운空想을 푸른하날로 날개처럼 펼치엿섯소 멀리落照를 바라보고는 하날저편에 열려잇슬 未知의世界ㅡ꿈의나라를 憧憬하얏섯소 내가여닯곱살적이엿소 나는아버지를 좃차서 그때돈으로 四百兩ㅡ우리故鄉돈으로는 이것이大十兩ㅡ을주고 벗갈이희망아지를사왓소。그러하야 여망아지에게 좋은色草場을 시켜고 우리先祖때부터 내려오던 局員를 엽혀가지고 어잔디밧테나와 놀려게 뛰놀앗소。

망아지와 뛰놀다가 疲困하야지면 망아지를 放牧해노코 나는 잔디밧테누어서 淸水가東쪽으로 흘너서 어느바다에 드러가는가를 생각해보앗소 그리고史略에서 배운 伏羲氏 神農氏들의가혹한善化에感激해보앗소。저西쪽 하날이닷는곳ㅡ저누런구름이 뜬곳엔 여기서멀다는西天西域國과〃뽕나무쟁이〃라는곳이려니。망아지가잘아서 駿馬가되면 나는 말을라고 그곳엘가보리라하얏소。

이러케 空想을 하다가 망아지가 제대로 달아나면 망아지를 차저서 온山과·온들을헤매엿소。한번은 망아지를 차저서 五里나되는 물건너마을엘 갓다가 해는저물고 망아지의 간곳은알수가업섯소。저물은 千里만갓해잇는것갓고 배저진무섭어두으니 어린마음에 그만 길가에서 울고섯다가 마을사람들에게 끌려서 집에도라온일이잇소。엇더케 겨막히고 (憂)울던일이엇든지 지금도 해가저물뒤에 길을거르면 반드시 그때일이생각나오。

내가 열여덟살되여서는 이잔디밧테서 〃杖〃을 치고 자라낫소〃杖〃어린것은 지금의 〃골프〃와가튼것인데 〃杖방울〃이라하야 (숲)몽이로만든 공을 杖채로 따려서 勝負를 다투는내기요 어것은 다른곳에도 잇섯는지는 모르나 그때나에게는 唯一한運動이엿소。날마다 공에마저서얼굴이 부르트면 아버지에게 들키지안흐려고 몰래담려 전구녕으로 집엘드러가서 숨엇던것이오。

나는 오래ㅅ만에 故鄉을오심 어린 나를이러케 커워주던匡山간되박헬 올너와소。들에는 五穀이어서 누러박석을 더펄고 마을아픔 들니는風景絶景에는 똥옷이 빨갓케 丹楓드럿소 마을에煙氣가 자우룩한 저녁을 땅아저소리는 들울수업고 어듸서 송아지가우오。저기우리집뒤에는 갓(笠棚)이 붉게 익엇구려。

나는 여기서 내어렷슬때의일을생각하고 다시어느때 누워뒹굴지모르는 옛날의 잔디밧테누워서 하날을 처다보오。山도 그山 하날도 그때처럼 푸르고 落照도 옛날 그落照요 그러나 여기에 누어서 이모든것을 바라보는나는 옛날 그少年이안이오 망아지도 지금은 누구의손에팔려가서 어되서엇덧케 늙엇는지 알길이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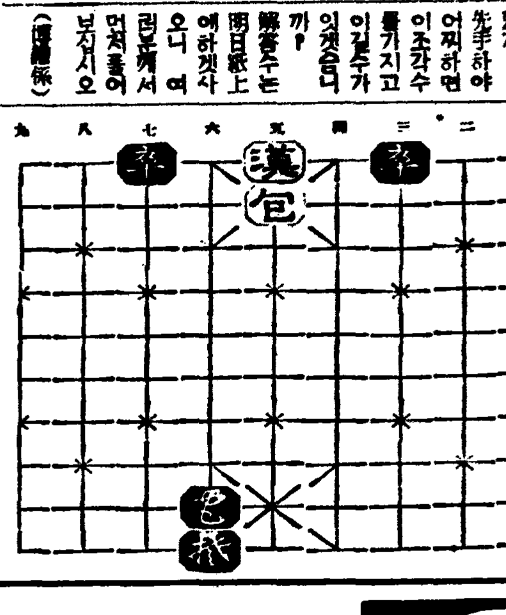
저녁연기하게 저물어 山을나려서 집엘도라와보니 나의박문위에 생가렛케 거른立春조히가 문득눈에 띄엿소 자세히살펴보니 그것은 어렷슬때의 내글씨로〃倚汝千里駒 何必待加鞭〃이라고 쓰여잇소。이것은 내가여흗살때 나룻을시작하는 께서 儒林盡事件으로 關團에게시면서 立春날밤에 나룻을라안지고 伯父께서 어굴한句를 어주엇다하야 그뒤부터는 날 놀나의방문우에 어굴한句를써서부치기로 習慣이되엿던것이오。

생각하면 눈물겨운일이요 千里駒와갓다던 조하는 온놈의俗한젊은이로 아모것도 못하고故鄉에도라왓는데 어굴을주신 爵黨의 伯父께서는 빈손으로 도라오는족하를 엇던心情으로 마지하엿겟소。

◇博譜大集 13 (問題)

◀楚가이기는수▶

楚가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은 明日紙上에 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보시오 (博譜係)



新刊紹介

▲學聲 第七號 發行所 釜山府草梁町三丁目三 學聲社 振替釜山八六三一番 定價一部五錢

▲正音 第二十號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一五二 朝鮮語學硏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定價十錢 送料三錢

▲調査月報 九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農民生活 十月號 第八週年記念講座特輯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三ノ九 崇實專門學校內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藝術科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金助町三八 日本大學藝術科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文敎の朝鮮 十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一〇三〇番 定價三十錢

▲朝鮮雜誌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漢江通六 朝鮮雜誌社 定價五十錢

▲아이생활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基督敎報 第一二九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九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라디오

十八日(月曜)

◇午後六時 傳記이야기 〃二宮 [illegible]

十九日(火曜)

◇午後一時十五分 家庭時間『簡端한料理製法』(一) 각씨 집

◇同六時 兒童劇『푸른하늘』 鄭順媛

◇同六時廿五分 어린이新聞 指揮 嚴達鎬 伴奏 南宮瓊

◇同六時卅分 講演『人間과榮養』 金浩植

◇同七時四十分 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講演(第七日)『非常時心身鍛鍊日』

◇同八時 講講『時局과心身鍛鍊의眞意』(嘉納治五郎) 曹學 李丙學

◇同八時十分 軍歌『爆彈三勇士』 景明合唱團 指揮 朴景嬉

◇同八時廿五分 大笒獨奏 散調 朴鍾基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同八時四〇分 一、報恩 二、興打鈴 三、六字백이 杖鼓 池龍九

◇同九時 愛國歌謠(朝鮮文藝會發表) 一、戰勝の秋 李冕相曲 二、征途を送る歌 大場勇之助作曲 三、金少佐를생각함 李鍾泰作曲 四、銃後義勇 李冕相作曲 五、防護團歌 李鍾泰作曲 六、長城의把守 玄濟明作曲 七、正義의師여 李冕相作曲 成小香 朴秋月

◇同九時三〇分 [illegible]民謠詞 伴奏 OK管絃樂團

第一放送

◇午後六時〇分 (大) 童話劇
◇同六時一五分 (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自大津) 講演
◇同八時〇分 (東滿演、唱歌)
◇同八時三三分 (熊) 詩吟
◇同八時四三分 (東) 合唱
◇同八時五三分 (東) 라디오風景

(十八日)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李俊興
◇同六時三十分 鼻明情報 沈天風
◇同七時四十分 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講演(第六日)『勤勞報國日』 國民精神總動員理事長 金明濬
◇同八時 謠講
◇同八時十分 軍歌『爆彈三勇士』 景明合唱團 指揮 朴景嬉
◇同八時二十五分 軍事美談〃奇蹟〃 申鼎言
◇同九時 一、小春香歌 二、遊山歌 三、제비가 申海中月 洪笑月

第一放送

◇同六時 (城) 唱歌
◇同六時二五分 (城)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唱歌
◇同八時三〇分 (大) 秀鄕民謠
◇同八時三三分 (東) 家庭コント
◇同八時五五分 (東) 浪花節

漢詩募集

題 紅葉
押 春
限 十一月五日

살은實例

곱싸고곳난는것이 저를살려주엇습니다

(咸南) 朴成龍

…早老하야 생활의 곤난과자우니 나의半生은 평탄하고 재미란도모지 맛보지 엿날엿니다 이러한 나에게 림질에 걸렷다는것은 참으로 청천벽력이엿습니다 집안의 형편도 형편이려니와 나의 신세로서 이병에걸린것은 후회하자니 것잡을수업는 길로마음에 빠즈것입니다 病院에는 갈수업는 형편이라 前에들지안는 신문지에서 良藥을 차저내기로결심하엿습니다 산산치로지 一讀하 읽어보앗스나 모다그럴듯하야 甲乙을 가릴수업스니 병아리입니나 저은돈으로 엿더케하면根治를 바랄수엇스랴! 藥고르기에 방황하다가 선뜻 눈에띠인것이 부라오銀센고ㅣ루입니다 說明文을 읽어내려가는中에 어느듯 나의病이나은 感이생겨습니다 그만치 친절하얄기쉽게 학문으로나 실지로나 정당하다는글이 나에게 확신을만들어주엇습니다 最初로 하고 센고ㅣ루一號와二號의中병을주문햇습니다 한두번치료에 쇠엇든고름이 쏘다저 나오고 오줌도 차차맑어지며고통도업서저서 다시금健康체로되게되엇습니다 어렷케손쉽게 집에서 곳치게된것도 오로지 나의용의주도하야 형편에속지안코 단번에센고ㅣ루를 끝나빈덕택이며 귀사의친절하신 지도에의한것이라고 밋습니다

斷念하엿든 慢性淋疾을곳치고서

(大邱) 金星茂

(前略) 무척대로 淋疾이 란낫지안는 病이라고 생각하야 일시적치료만으로 그럭저럭 지난지 數年어됩니다 그러나 근래에들어서 친구들의 모회좌석에서 흔히 근치되엿다는 말이나오게되니 남의말은 신용안하는 내나새이지만 다시금 活氣를얻고자 친구를 차저무르니 그것이 곳 貴社의『겐고ㅣ루』이엿습니다 방식바의로 치료를 시작햇습니다 사용합에도 조금도 불쾌 불편을 모르겟고 아조순순이 치료를 계속中 전에소비된 멧十분지一의 金額밧게 안엇는데 病은 거진낫도록하므로 깃붐에넘처 貴社에 書信을올려그後의 病勢를報告하야 지도를바더가면서 一心치료에힘썻습니다。인생四十이라가운이몸에 재희과 깃붐을 엇는넘도업다시안엇겟지요。(後略)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創製新發明 元東京吉原遊廓 吉原病院長 佐藤榮先生

독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은
부부협력하시와 겐고ㅣ루로
치료하시사 속히 근치식혀버립시다

非常時에맛당한
健康한일군이되자

림질을完治
못하고게시면

百發百中으로根治되는二重殺菌의新發明治療法이 생겻습니다

지금까지 수만은 림질약이 생겻스나 完治率이 적엇든것은 엇더理由나하면 첫재로써 환자께서 치료약과 치료법의 선택을잘못하신탓입니다 즉 림질의 병화균이 男女의 프도조직속에 병균이 들어잇는데잇것을 돗도히 깨닷지못하신 까닭입니다。그러므로 그곳에잇는 병균을죽이고 혼접을 곳치라고 먹는약을 복용하시고게신분이 만흐나 배속을 돌아서약간의 약기운이 오줌에섞겨 그곳을 지내게되는 內服藥의작용으로는 죽기에는너무도 궃쇠인병균이며 앞물기에는 너무도엄청나게 큰통점이생겨잇기때문에 복약할사이에는 줄어세가 개인듯하다가는약만끄치면또다시 再發합니다 어머 여러분께서 경험하고게신事實일것입니다。

그러면 엇더케해야 속히 림질은근치되느냐하면 어좃한조섭과함께 병세에따라 상당한 기한을두는수도잇스나 專門病院의 치료를 바더야됩니다。즉병세가변하는데따라 치료약의성질을 조합케되는때문에 더욱유효하오나 만일 病院에 못가시는 사정이게신분은 信用잇는 專門藥『부라오銀센고ㅣ루』의 二重殺菌療法(이중살균료법)으로치료하시면 病院치료와 똑가튼효과를 속히根治됩니다。즉 직접 병화균인 환부에 약한방울넘너면 가신듯이 병세가 낫어가는 약인데 더구나 지금까지의 치림제에서는볼수업든변해가는 병균의성질과 병세에맛게한 치료법—두가지약을쓰는—이강구되어잇는만큼 百發百中으로 根治됩니다

二重殺菌을 엇재서 해야만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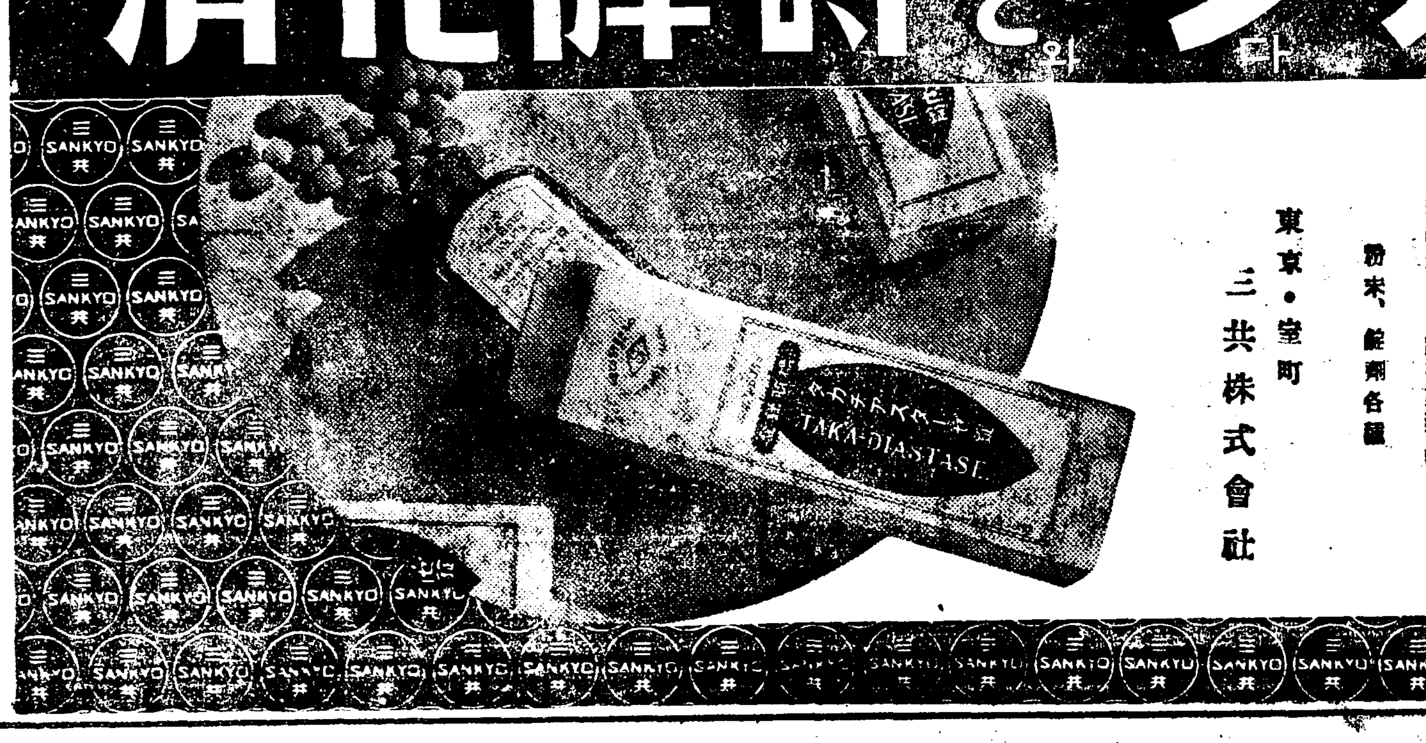
『부라오銀센고ㅣ루』는 급성인분이나 만성된분이나『一號』와『二號』를 계속하여서 치료하서야되나니 그理由는 먼저말삼드린바와가티 변화하는병세에맛도록한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기쉽게말삼드리자면『一號』약성질과『二號』약성질은 결국 재래의국소약(局所藥)처럼 단일의성능밧게내지못함으로 변듯이『一號』로 병세를 다스르고『二號』로 압죽게하는 二重殺菌作用이라야만 림질을 단시일에 근치식히게되오니 의학계에서도이것을증명하고잇는바입니다

——◇——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부라오銀센고ㅣ루』의 약가는 各號가同一하오니 보통약…一圓九十錢、十七日分…三圓八十錢이며 본포에독자에한하야 송료자신칠전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二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

통지하시는대로『림질자료치료서』를거저드립니다



消化障碍と タカヂアスターゼ

(와 다 가 지 아 스 타 ㅣ 제)

消化障碍는

胃腸病만이아니라、여러가지 疾患時에隨伴해서 食慾不振、榮養障害等의悪影響을 招來한다。

다가지아스타ㅣ제는 消化液인 唾液、膵液中에 存在하는 거의 全部의消化素를 含有합뿐아니라、纖維素、硫酸鹽、燐酸鹽其他、作用하는 十餘種의消化素를 含有하고잇서、至今에는 어며四十年을바라보는 貴重한 臨狀經驗으로 모든 경우의消化障碍에 이것을주어、消化를돕고、食欲을 增進식혀、榮養을佳良케하는 効果가 顯著하다는것이 承認되여잇다。

다가지아스타ㅣ제는 一般麥芽性지아스타ㅣ제와는 그原料製法을달리하고 品質에 絶對的差異를 가진것이므로 混同하지 안토록特히 注意하십시요。

(明治書御申越次第進呈)

粉末、錠劑各種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服用한一匙·반드시奏効!

胃活 위활

胃腸良藥

谷井博士指導

晩歸瀑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胃活은 胃腸內를 淸淨케하고 食慾을 增進식히며 便秘를調整하고 消化를佳良케해서 體重을增加식힌다

●胃活은 强力한 健胃整腸劑로 여겻을 常用하면 胃腸이根本的으로壯健케됩니다

아래와가 무겁고、口味업는이
慢性胃弱으로 顔色파뿐이
배부르고、便通이 약한이
空腹時에 배압흔이
가슴압흐고 신물올라오는이
過飮過食한이

여러분 症勢잇는이에게는 胃活은才장 靈驗한效果가잇슴니다 一回食後 試用하세요

本舖 山田安民藥房
營業所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工場 大阪市東成區鶴橋町

●各地藥店에잇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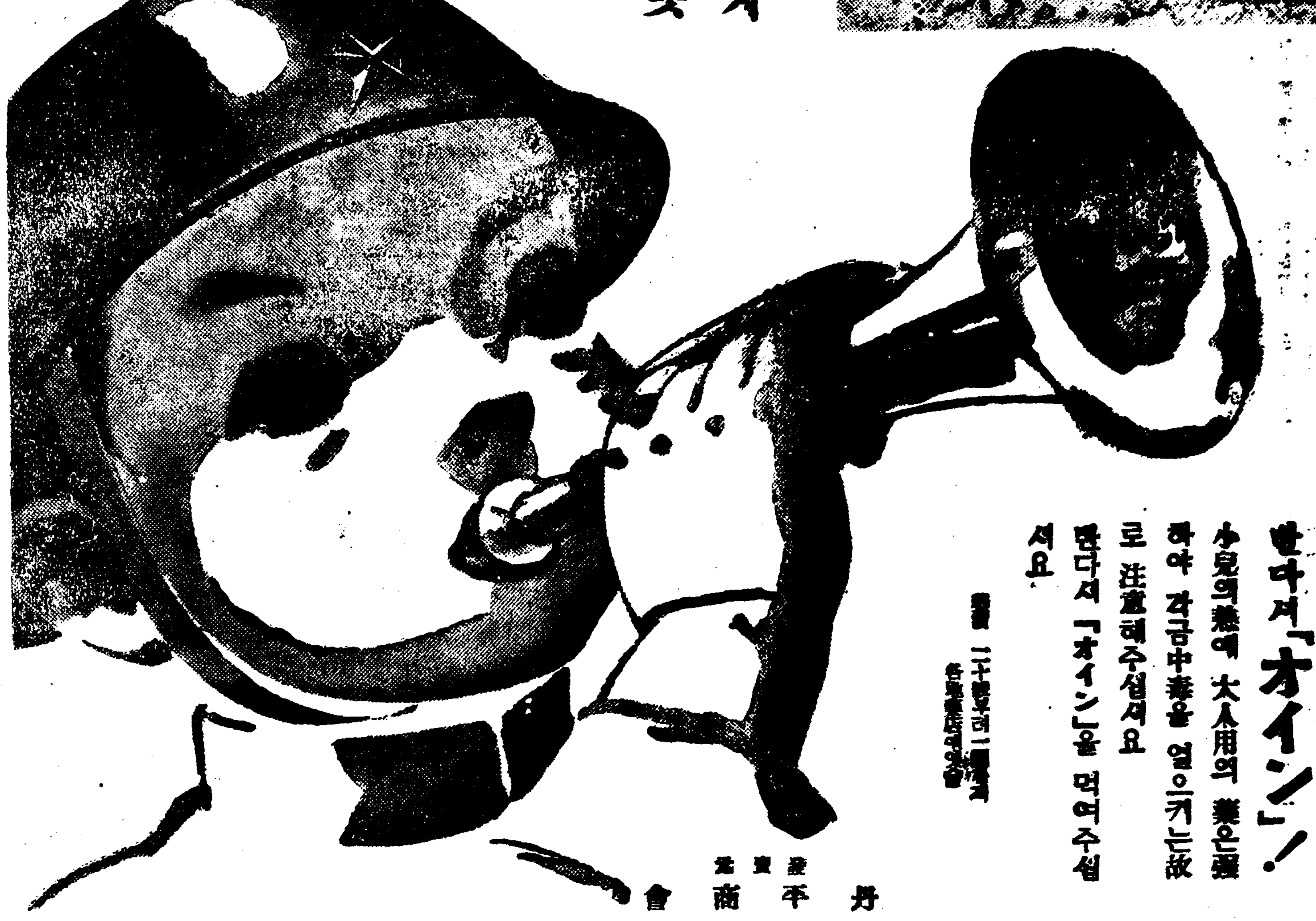
オイン

コドモのかぜねつ薬

安全하고 먹게쉽고 速히잘듯는 育兒藥!

主効
감긔、열
유행감기
麻疹、肺炎
百日咳
其他熱諸症에 써서安全奏効

濟州島 正房瀑布



愛兒의熱에는 반다시「オイン」!

小兒의熱에 大人用의 藥은强하야 귀금中毒을 일으키는故로 注意해주십시요 반다시「オイン」을 먹여주십시요

定價 二十錢부터 二種제 各地藥店에잇음

發賣元 好平商會

懸賞募集 名勝地와有名商品推奬

朝鮮日報社 廣告部懸賞係

懸賞應募規定

一、此賞에指定된 各種商品中에 各名勝이入되어잇스니 熟覽하시後 ▲名勝地名 ▲商品名 ▲商店名、等을四項全部記入할것。
一、應募用紙는當製業者에限하고 應募에制限이업는데 一人이幾枚라도應募할수잇슴(應募者의住所氏名詳記)
一、締切은十月二十日限 (當日附郵便消印잇스면有効)
一、當選은嚴正抽籤하야 一、二、三、四、五等을定함
一、當選發表는十月下旬本紙上
一、宛先은京城太平通一丁目

賞品

一等 (一 人) 自轉車、콜럼비아 포타블蓄音機、中志景品一件
二等 (二 人) 腕時計、京城放送局指定受信機、세ー라스케ー트及同靴付、高級핸드빽、中志景品一件式
三等 (十 人) 化粧品셋트、파이로트萬年筆、卓上時計、電氣다리미、白銅紳仙爐、縫製盒一雙、中志景品一件式
四等 (五十人) 石鹸半打、一人當半打式
五等 (二百人) 觀光一册式
●賞品은十一月十日까지發表함

秦始皇도秘藏愛用튼强筋借力劑

高貴秘藥二十七種配合

中國宮中秘藏靈藥 借力虎骨丸

借力虎骨丸以上의秘藥發見되면 壹萬圓提供

借力虎骨丸服用으로 天下無敵!

全의幸福!

領藥開始

現在것은 보다 다섯갑절은 확실히 더닥고 骨格에 정대하여져고 大補元氣하고 만병을능치한다 名藥에 國境이업도다 男女老幼를 不問하고 곳시라! 天下에떨치는 借力虎骨丸의 神妙한偉効는 現中國의 政界財界의巨頭가 紹買愛用하는 事實이 如實히證明하고잇다!

藥價	
大借	百圓
中借	五十圓
少借	三十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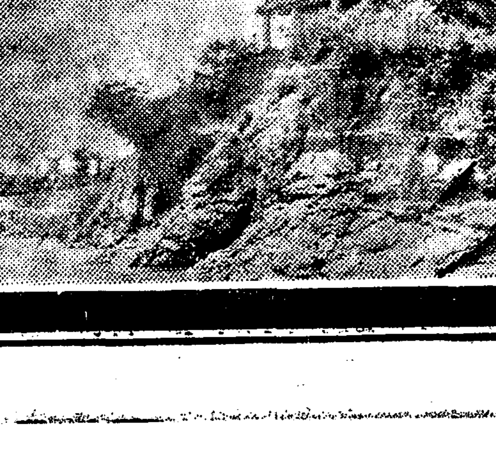
註文은 前金으로(郵振替口座新京九九〇番에拂込하시면便利) 註文하셔면 運賃、稅金을 一切弊社에서負擔하겟사오며 代金引換은二割의手付金을要함

朝鮮內地樞要地一店限 特約店大募集

中國漢藥의 朝鮮進出은決코 偶然이아니오라 善隣朝鮮人士의 健康을爲하야 貢獻에莫大하다고 確信을갖고잇사오며 特히 今般鮮內服藥業의 便宜를圖謀키爲하야 販賣店을募集코저하오니 僉位는照會하셔면 有利契約하겟슴니다

借力虎骨丸은左記症勢에도卓効가有함

借力、體力大發 背痛、腰痛、腰酸、風濕、
精力增進 骨節、筋骨疼痛、便漏
遺精、早老、早漏 記憶力增進、疲勞感解消
心身衰弱防止、腎虛與陽肥滿


全州 寒碧樓

拾月末日限 借力虎骨丸 註文者의게 萬壽百補丸 一瓶式 進呈

滿洲國新京興安大路六〇六
亞細亞大葯房
振替 新京九九〇番
電話 ③ 一四四一番

健胃消化劑 蔘靈神丸

單一粒으로 效果滿點! 多量의 高麗人蔘과 强力消化劑를 配合調製하여 大果的健胃消化劑로는 現世無二의 名藥이외다

補血强壯劑 蔘茸エリク

人蔘과 鹿茸은 萬古不變의 强壯劑이다 千萬가지 補劑藥이 잇드러도 먼저「蔘茸エリク」를 服用해보라

主効
元氣衰弱、食慾不振、虛弱體質、結核性諸症、精力增進

朴淵瀑布

500	G	5•00
250	G	3•00

高麗人蔘老舖
本舖 ㊂ 高麗蔘業社
朝鮮·開城

中部版

仁川港을中心으로 厨房에兩大脅威
輸入品苦草는約二倍半暴騰
輸出品인鷄卵은現品不足

【仁川】 채소값보다는『고초』값이 어빅사리라는 주방을 위협하고 잇는『규쓰』가잇다 이제작년에 의 고초가를 조사한바에의하면 작년도에는 매표 십사오원하든 것이 금년도에는 매표삼십오륙 원내지사십여원에 달하야 이배 내지삼배의폭등을 보히고잇다 는데 그원인을조사한바에 의하면 이는사변으로인하야 남지(南支) 방면으로부터 수입되든고초가 전연두절된관계로 인천부두에는 그그림자 조차볼수업는관계로 벌서부터 수입부족을맛보고 전기와가티폭등하고잇다한다

【仁川】 사변이발생한이후로 전지(戰地)또는 북지(北支)만주(滿洲)등지로 수출되는 계란이 격증하야 매개이전오리식하든 것이 사전까지폭등되고 잇을뿐아니라 현품난을면치못하고잇는 형편이라 인천부내에서는 …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라는바 … 인천부내에 모범양계장을설치하고 일반에게 이를 장려할 뿐아니라 종계(種鷄)분을 제공하야 장려증식을 철저히 하리라한다 … 고 매출면장 전업자에게 부탁하엿다한다

萬五千名動員 仁川서도旗行列

【仁川】 지나사변발발한지 불과 사개월에 황군의보무는당당히북지나지대부분을점령하게되야 …

誘拐魔窟에서 少女兩名失踪

【仁川】 … 조선소녀양명을 저하여 … 가지어오는것을 언정서에서 … 유괴마 … 방으로 수배 … 이라한다

米穀共販에 檢查不公平

【水原】 …

洪川郡內에도 火田民二萬餘名
過冬할生活이問題

【洪川】 강원도의 관문(關門)이라 어 우리들과같은 백미(白米)를 할수없는 홍천지방은 동서남북으로 교통상이지극히 편리하야 상식으로하는자로서는 이목불인견의참상이다 이러한 그들의생활상태는 구원자가잇서야 할것 …

北支視察團組織
仁川商工會의主催로
商圈擴充과貿易促進이目的

【仁川】 지나사변발발한지 … 서 황군의 보무가 북지일대를 점령하고잇서 지방에 따라서는 …

戰勝奉告祭
開城神社서執行

【開城】 석가장(石家莊)함락을계기로하야 부지에서 함락하는황군의 의기를일층 고무하기위하야 각관공서상 정총대 언론기관등 백여명의유지가 참집한가운데 지난십륙일 오전구시부터 개성신사광장에서 무운장구의전승봉고제(戰勝奉告祭)를 성대히 거행하엿다한다。

貧者의一燈
農牛팔아獻金

【水原】 애국기수원호를 건조하 …

◇……秋收 (素砂公普六年生의 作業光景)

前科者男便에게 同居拒否한안해
開城署도離婚을勸告

【開城】 범죄자의 딸인줄 알고 …

人造絹을훔처내여 땅사고집산職工
永登浦昌和工場에서

【永登浦】 강원도철원군 묘장면대마리 …

洪川公普校運動會

【洪川】 홍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

始興各文廟도釋奠

【永登浦】 시흥군(始興郡)관내에잇는 시흥(始興) 안산(安山)과 …

興行場도不景氣
市內十九處모두減收
昨年九月보다四千餘圓減少

…

花冠 【76】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알도록불행한것 五

…

醫師試驗準備書

小資本工業內案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就職近道
奉天 大滿測量學院 第一回 生徒募集
第一回卒業生就職率九十%!
滿洲山野는찻고부르는것모도다測量技師不遠間細部測量實施▲測量學과滿洲語專門教授▲出願期昭和十二年十月末日
▲百二十二圓短期卒業 ▲奉天市平安通十二 ▲振替奉天一九六番 ▲開學日十一月五日 ▲學則請求要三錢郵票

公州 雙樹亭

來年一月以降의 硫安建値를決定

三—七月은比現行十五錢値上

朝鮮販賣도同一條件

【東京電】來年一月以降七月까지의 硫安建値는 硫安販賣組合과 農林、商工兩當局의 三者間에서協議한結果 十四日如左히決定하얏다

一月 三圓六十三錢
二月 三圓六十八錢
三月로부터七月까지 三圓七十三錢

以上과가티 最高最低의二本建으로하지안코 一本建으로 하고 最低價인 三圓五十八錢에比하야 三—七月의建値는 十五錢引上으로 되리이다 朝鮮의販賣는 內地와同一條件으로 決定하얏는데 右建値는現行보다 [illegible]

公定價値上事情

直接生産費昻騰이主因

【東京電】次期硫安建値決定事情을보건대 最近硫安原價는 電力、石炭、硫化鑛包裝材料等의直接生産費와 稅金、營業費等의間接生産費의 價上을보앗는바 業者는 時局에鑑하야 間接生産費의上昇은 自己負擔으로하나 直接生産費의 値上은 生産費의 値上으로 引上을 主張하는側도잇서 一時는 紛糾가 念慮되엿스나 十三日의 理事會에서 意見이 一致하야 最高三圓六十錢가 當局에 內示하얏다 그리고 業者間에 數次 折衝한結果 業者도 事變에依한 農村의勞働力과 馬匹의不足을 補充하는國家的見地에서 讓步키로 決定을 보앗다 [illegible]

水産業者戶數

十六萬七千戶

比前年七千五百戶增

總督府發表에 依하면 十一年末現在朝鮮의 水産業者戶數는 十六萬七千二百九戶로 此를前年度에比하면 七千五百七十九戶의增加인데 其詳細는 左와如하다

▲朝鮮人十六萬二千八百五十戶
▲日本內地人四千四百七十二戶
▲外國人七戶

鹽販賣狀況

專賣局九月分擔販賣高는 合計 七千八萬八百六十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約三十萬圓의 增이다 이것을 各所別로 示하면 新義州九萬八千四百二十一圓 鎭南浦十四萬五千二百五十六圓 仁川二十六萬五千九百三十六圓 群山三萬六千三百十四圓 木浦九十五萬五百十一圓 釜山七萬六千六百十四圓 元山七萬九千九百十三圓 淸津六萬九千七百二十六圓의 成績이다

山東唐辛子

輸入全然杜絶

朝鮮內에서栽培奬勵

山東으로부터 朝鮮에 輸入되는 唐辛子는 昨年四十七萬圓의 多額에 達하엿는데 本年一月부터 八日까지는 三十九萬五千圓에 達하얏는바 今後事變으로 九月에는 全혀輸入이 杜絶되고 絶無의 狀態이엇다 特히 輸入統制法의 實施에 依하야 唐辛子도 輸入에 際하야서는 許可를 要함으로 漸次 値上을 示하고잇는데 農林局에서는 野菜의 栽培奬勵와 共히 唐辛子栽培도 奬勵에 努力키로되엇다

英米는低落 日佛은昻騰

九月內外物價指數

日銀調査『九月의 內外卸賣物價指數는 倫敦二二四·一 紐育一二四·六으로 比前月 前者는 一分三厘、後者는 九厘五毛의 各低落이나 東京은 一分六厘昻騰하야 一八九·五 巴里는 一分九厘 昻騰되어 五九〇이엇다 倫敦 紐育의 低落은 食用品農産物及綿花暴落에 依하야 出廻增加로 含에 原因하고 特히 砂糖及小麥은 大幅低落되엇고 其他 金屬은 政府의 高物價抑制의 奏功으로 低落한것이 影響되엇다 東京의昻騰은 戰局에依한減收念慮로 農作物이 騰貴한것과 棉花綿絲布가原料輸入難豫想으로 騰貴한것 金屬類、燃料、工業藥材가 特殊需要에 因한 市場出廻品薄로 騰貴한때문이며 巴里는平價切下後도 依然昻騰되엇다

大正三年七月=一〇〇 巴里는 八月分

	九月	前月	前年同月
東京	一八九·五	一八六·五	一五九·八
倫敦	二二四·一	二二七·一	一二九·九
紐育	一二四·六	一二五·八	一二六·九
巴里	五九〇	五七九	三六六

依然繼續昻揚

七月工業生産量指數

【大阪電】支那事變勃發當初月인 七月의 工業生産量指數는 鐵鋼、紡績、化學工業 [illegible] 大勢는 依然昻揚의 趨勢에잇다 그리고 前年同月에 比하야 特히 減少가 顯著한것은 生絲、絹紡績、毛織物의 纖維商品、硫安、小麥粉及金銀 石油(原油)等이오 事變前인 前月에 比하야 減少가 顯著한것은 絹絲 絹紡、毛絲紡績物 人造絹織物 洋紙 板硝子 硫安 過燐酸 石灰等이다 [illegible] 前年同月의 一六九·六에 比하야 [illegible]

◇化學工業 [illegible] 一四六、四
▲板硝子一六九、八▲硫安一九八、八▲石灰窒素一二四四、七▲過燐酸石灰一五五、四▲晒粉一八大、四▲曹達灰二二九、五▲苛性曹達四六九、三▲人造絹絲五二六、〇▲洋紙一六二、六
◇食料品工業 小麥粉九六、一▲精製糖一四八、一
◇電氣、瓦斯 電氣一六七、五▲瓦斯一〇九、〇
◇製造工業平均一七五、四
◇鑛業 金一六三、六▲銀一六六、七▲銅一一八、四▲硫黃三二、二▲石油(原油)一五二、六▲石炭一五〇、六
◇鑛業平均 一四八、九

今日의市勢【十八日】

株式 人氣萎縮 續落

前場續落 休日을지난今朝도 阪地低落移하야 賣物不昻하고 嫌氣賣가續出하야 東新百四十圓二十錢、鐘新二百二十七圓八十錢 大新七十八圓二十錢 日産六十五圓八十錢에 一齊低落이엇다

後場休會 後場은 京城神社祭禮로 休會인데 大阪下落少戾로 當地氣配도 少堅이엇다

嫌氣投物續出

休日을 지나가고 嫌氣投物은 不絶하야 東新百四十圓廿錢、鐘新二百廿七圓臺로 不勢가 繼續되엇다 이러한原因은

一、對日海外認識이問題로 九個國會議等에서 어떠케될지

二、上海戰況이 依然進展되지안는것

三、增稅念慮

四、統制强化와 消費節約의 徹底化로 事業會社 收益減에因한 減配念慮

等에依하야 嫌氣가續出하고 買方이 値를崩하는結果로 되는도 알이다

大分岐接近? 大保合繼續?

【구로도】側의觀測을들어보면

一、市勢는 좀보꺼이어로 자꾸지 굿하保合이 더繼續되리라는것

一、結局은大崩이리라는것

期米 堅强步調 上進

前場伸悩 一休今朝에 當地는晴天 東京雨 大阪曇 下關快晴으로、阪地初付三十一圓二十九錢인 十一丁高를보하고 當은九圓六十二錢인 八丁高 中은六圓七十錢인二丁高로 先限은亢調의 買進으로 二十八圓六十錢이高를 一丁高로寄을始한後 阪地三節二十錢으로 突落하엿음에 五十四錢까지低移하더니 阪地五節二十一錢으로反히 二十四錢에 反高하는 形勢를 五十六錢으로結局고 九節五十九錢이다가 五十六錢에止하다

後場昻高 後場은 二十八圓五十九錢에 三丁高로始場後 四、五節六十四錢에 昻高이엇다

當限戰의今後

當地의 當限戰은 表面의取組가 一萬八千餘石으로 就中金太店을 中心으로한 某有力側의買物이 大部分을占하고 賣便은大衆이 集中되어잇는데 賣方의立場에서보면 新米의出廻가漸次旺盛함에도 渡米의蒐集은 容易한것이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債 株式低로 軟弱

【東京電話同盟】依然한 氣迷人氣로 株式의 不良影響하야 全體的으로 軟弱化하고 內地債는大幅 五錢小崩、佛貨는 當限十錢低이오 米貨五分半은 三百五十二圓三十錢으로 通日에 比하야 七十錢低이엇다

【上海戰】[illegible] 人氣主로 實物이 投賣하려하는 模樣이어스며 反面의 買方도 큰利害를 고 時局에 [illegible] 다시 賣物을 받하야 [illegible]

正米 各地商狀 區區

京城落調 本日定期保合이나마 賣物稀少인때이라 買氣一巡으로 市勢는二十錢低唱어엇다 丸仁三二等三〇、四〇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三二、三〇

仁川軟調 依然新現賣物이 업고 市場人氣低迷이다가 精米側의 低價物色買가 散見되어 二十錢低로 軟調이엇다 ㊀穀良三〇、四〇 三〇、一〇 銀坊主三〇、六〇 三〇、三〇 多摩錦三一、〇〇 三〇、七〇 一等白米三二、三〇 三二、〇〇

釜山上放 市場賣物 四十俵內外어나 低値賣物 一巡으로 人氣旺盛하고 地場小口의 積極買에 市勢도 二十錢上放을呈하얏다 ㊀穀良 三一、〇〇 三〇、八〇 一等白米三二、三〇

大邱引返 休日後이나 一般買氣 一服으로 商狀閑散이나 唱三〇、八〇 一等白米三二、三〇

群山伸悩 出廻二十俵大俵를好로 出廻增加가이나 買付人氣이 活氣 一方買方도 內地側의 現物引取가 圓滑하다 ㊀穀良 三〇、二〇 四等三〇、〇〇 一等白米 三二、四五

木浦引締 內地 期近堅調로 商談이 依然閑散이나 大阪十錢引締이나 大口商談이 적고 ㊀銀坊主 三〇、一〇 二九、八〇 一等白米三二、七〇

市場六感

㊥……休日을지나도赤是陰鬱 不勢 ▲祭日어니 한잔먹고氣分을 내볼가? ▲過去戰勝 時에 依하야 買上되고서는 그때마다 投出하야 投機資金 缺乏으로 思惑氣分不起가 昨今市勢委靡의 直接原因 ▲今十八日부터 東新百四十四圓臺 乃至七圓台에 互한 高値乘替玉이 닥처오니 嫌氣投도 나올리겟 ▲그러나 人氣萎縮인 反面에는 市勢는 人氣와反對로 戰勝市勢의 出現도期待되어 人氣轉換期가迫到될것가티 도한데 果如何?

㊥……一休 今朝는 東京雨天 大阪曇天으로 又復一高를 報하엿다 秋來의 日氣는 大體不良 ▲朝鮮米의 第一回 豫想은 增收說이 多하나 日本內地米의 第二回豫想은 減收說이 擡頭 ▲此增收와 減收의程度가 何如할지는 몰으나 大體 强材가 優越한모양 ▲그래서 主力買方은 一向態度를 變치안코 高値의利喰 低値의 買占으로 終始一貫하는 모양인데 今後의 出廻가何如할지 農家의態度如何로써 商勢는 左右될듯(當山)

今日財界【十八日】

◆米
仁川期米先限 二八五六
大阪期米先限 三二四四
京城三等米一石 三〇三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當 [illegible]

◆株
[illegible]

海外經濟【十七日】

[illegible]	[illegible]

京城物價【十八日】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手形交換·金利 / 大阪金利 / 京城市中金銀價 / 東京金銀價 / 對外爲替 /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 正租 / 京城雜穀 / 仁川雜穀 / 京城綿絲布市勢 / 滿洲商況 / 阪神鋼粕 / 阪神綿油 / 日本麥粉市勢 / 朝取短期賣買高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東京現株 / 日步代引 / 大阪短期 / 大阪短期取組 / 大阪長期 / 朝取期米 / 群山期米 / 釜山期米 / 大邱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大阪期米 / 東京期米取組 / 大阪期米 / 木浦期米 / 日本各地期米 /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各地人絹 / 橫濱生糸 / 大阪砂糖 / 東京砂糖

[illegible]	[illegible]

期米 東益夏 仁川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趙俊鎬取引店 仁川港町三丁目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强筋強骨倍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補藥은漢藥이第一 (朝鮮人體質에잘맞고效力깁고永久합니다)

非常時代는健康이第一必要

世界의자랑

天下의補藥中 百補丸갓치 몸에利한藥이 다시업습니다

陽氣·精神·氣血胃腸等이모다 조와지고、食事가倍加됩니다

▲病弱人은 疾病治療劑로
▲氣血虛弱人은 補血强壯劑로
▲陽氣不足人은 精力補給劑로
▲中年人은老衰防止更少年劑로
▲藥効信用天下第一!

漢方호루몬强壯劑

一、近來盛히 떠드는 호루몬劑도 漢方에서는 벌서 一千餘年前부터 使用해온것임니다

二、百補丸에 含有한 호루몬은 實로 高貴玄妙한 性質어잇습니다

三、百補丸은 實로 累試累驗의 名藥인故로 絶對 自信을가지고 藥効를天下에 推奬합니다

三、元氣不足、陽氣不足、胃腸衰弱、消化不良、神經衰弱、不眠症、貧血症、肺弱、疲勞、盜汗、營養障碍等에는 唯一한 多元性治療强壯劑입니다 病과虛弱으로 걱정말고 至今 곳 百補丸을 服用하시요

虛弱이過度하면 百藥이無効한法

不治의難病도小小한 虛弱으로부터始作!

[illegible]

체중을 根治하려면

消化劑를쓰지말고 健脾强胃劑를쓰시요

●百補丸은健脾健胃作用이强大함으로 [illegible]
●체중에對하야 一時的病者의好感을주기爲하야消化劑를大大的으로 宣傳販賣하는곳도 [illegible]
●百補丸은健脾消滯의二重作用을함으로체중消化不良을根本的으로곳치고 [illegible]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광장합니다

[illegible]

藥價 百補丸 一劑 特價 [illegible]
婦人百補丸 一劑 特價 [illegible]
無料進呈 [illegible]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發賣開始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一番·三三〇番·振替五番